

東岡의 生涯와 文學

慶北大學校 金 光 淳

目 次	次
I. 序 論	3. 登場人物
II. 生 涯	4. 葛藤構造
III. 思想的 志向과 治世觀	5. 文學的 價值
IV. 天君傳	V. 漢詩文學
1. 梗 概	VI. 結 論
2. 創作時期 및 神明舍圖와의 關係	

I. 序 論

東岡 金宇顯은 性理學者이면서 小說을 썼다는 점에서 注目할 만한 人物이다. 많은 儒學者들이 小說을 否定的으로 다루었는데 그는 스스로 小說을 創作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明宗21年(1566 A. D.)에 그가 쓴 天君傳은 心性을 擬人한 天君小說의 嚆矢로서 後代의 天君小說 創作에 많은 影響을 끼쳤으므로 우리 小說史에서 매우 重要하게 평가된다.¹⁾

天君實錄의 作者이며 儒學者인 小隱 柳致球는 자신의 天君實錄 跋文을 쓰면서 東岡의 天君傳에 대하여 옛날 東岡 金先生이 天君傳을 지었고, 族先祖 上舍 石嶽公이 軀書를 편찬했다. 그런데 天君傳은 너무 簡略하고 軀書는 번잡함이 지나쳤다. 이에 두 作品을 結合해서 모아 一通의 天君實錄을 이루었다²⁾고 하였으니, 天君傳이 後代의 天君小說에 끼친 影響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文學史에서는 東岡을 거의 論外로 하고 있으며, 그의 簡略한 生涯와 思想에 대해서만 筆者의 天君小說研究³⁾에서 약간 云謂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本稿는 東岡의 生涯와 그의 思想的 志向 및 治世觀을 考究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文學世界까지 논의를 進行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의 많은 文學作品을 한꺼번에 다룬다는 것은 너무 방대한 작업이므로 本稿에서는 小說史的 의의가 특히 큰 天君傳과 東岡集에 실려 있는 그의 漢詩단을 대상으로 하여 밀도 있게 考察하고자 한다. 이렇게 될 때, 東岡의 진정한 面貌가 드러나고 그의 文學世界도 제 자리를 찾게 되리라

1) 金光淳, 天君小說研究(螢雪出版社, 1980) pp. 105—193.

2) 水西集 卷之五, 天君實錄跋.

3) 金光淳, 前掲書.

생각한다.

II. 生涯

東岡 金宇顒의 本貫은 義城, 始祖는 高麗 仁宗 때의 金紫光祿大夫太子詹事를 지낸 바 있는 義城君 龍庇로 東岡은 그의 12世孫이다. 龍庇의 五世孫 用超는 文科에 급제하여 嘉靖大夫 湖南道兵馬節制使를 지냈으며, 東岡의 祖父 致精은 承政院 左承旨에 贈職되었다.

그의 生涯를 東岡先生年譜⁴⁾와 그의 後孫 金槐의 手稿인 年譜 別本⁵⁾에 依據하여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東岡 金宇顒은 朝鮮 中宗 35年(1540 A. D.) 7月 2日 慶尙右道(慶尙北道) 星州 沙月谷里에서 三陟府使를 지낸 七峯 金希參과 淸州 郭氏 사이의 四男一女 中 막내로 태어났다. 그는 字를 肅夫라 하였으며 自號하여 直峯 혹은 東岡이라 하였는데, 直峯은 沙月谷을 둘러싸고 있는 七峯을 直峻山이라 한 데서 取音한 것이며, 東岡은 그가 篤學하던 東岡精舍에서 取音한 것이다.

東岡은 明宗 3年(1547 A. D.) 그의 나이 8歲에 이미 七峯公으로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하여 19歲 때는 進士一等第三으로 小科에 合格하였고, 20歲에는 德溪 吳健이 星州에 教授로 부임하자 그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하였다. 明宗 18年(1563 A. D.) 東岡 24歲에 會寧府 萬戶 金行의 딸인 尙州 金氏에게 入丈하였는데, 그녀는 當대의 鴻儒 南冥 曹植의 外孫女이다. 27歲 되던 해에는 漢陽에서 退溪를 만나뵈고 가르침을 받았으며, 이후 30歲와 31歲 때 2次에 걸쳐 書信으로 退溪에게 禮說에 관하여 質疑한 바도 있었다.

그리고 東岡은 明宗 22年(1567 A. D.) 28歲되던 해에 內科一等으로 文科에 及第하여 承文院權知副正字에 임명됨으로써 그의 宦路가 시작되었으나 病으로 사임하고, 32歲에 復職되었다가 34歲에는 弘文館正字 副修撰을 역임하여 湖堂의 賜暇讀書를 받았으며, 그 이듬해에 修撰으로 陞進되었으나 吏文 肄習에 居中하여 成均館典籍으로 左遷되었다.

宣祖 8年(1575 A. D.) 東岡 36歲되던 해에는 修撰에 復職되어 이듬해 副校理, 吏曹佐郎, 議政府舍人, 議政府檢詳을 역임하다가, 38歲에 王이 儒臣의 直諫을 싫어하는 기색이 보이므로 사직하고 下鄕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39歲되던 해에 星州 西北 修道山 아래에 考槃精舍를 지어 잠시 隱居하다가 宣祖 14年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다시 나아가 副校理에 除授되었다.

4) 東岡集 卷之八, 東岡先生 年譜.

5) 東岡全集(成大 大東文化研究院, 1976) 東岡先生 年譜 別本 pp. 419—536.

宣祖 14年(1581 A. D.) 東岡 42歲되던 해에는 應敎 議政府舍人을 거쳐 이듬해 直提學으로 陞進되었다. 그러나 康氏의 附廟 問題로 還鄉하였다가 곧 製述官으로 부름을 받고 나아가 直提學에 復職되었다. 宣祖 16年(1583 A. D.) 東岡 42歲되던 해에는 成均館大司成, 承政院右副承旨, 司諫院大司諫, 吏曹參議 등을 역임하였고, 宣祖 17年(1584 A. D.)에는 弘文館副提學을 거쳐 全羅道觀察使에 이르렀으며 同王 18年(1585 A. D.)에는 다시 副提學을 拜命하였다가 同王 20年 安東大都護府使에 임명되었다.

宣祖 22年(1589 A. D.) 東岡 50歲되던 해에는 鄭汝立의 모반으로 己丑獄事가 일어나 이에 연루된 東岡은 함경도 會寧에 流配되었다가 宣祖 25年(1592 A. D.) 壬辰倭亂이 勃發하자 그해 5월에야 비로소 풀려나 吉州, 端川을 거쳐 11월에 義州 行在所에 이르러 備禦機務 七條를 올리고 副護軍, 承文院提調에 除授되었으며 12월에는 兵曹參判에 任命되었다.

宣祖 26年(1593 A. D.) 東岡 54歲되던 해에는 副總管을 거쳐 9월에는 龍驤衛上護軍 兼同知義禁府事에 임명되었고, 10월에는 朝廷과 함께 서울에 還都하였다. 이해 11월에는 漢城府左尹, 惠民署提調에 임명되었으며, 閏11월 世子左副賓客을 兼任하여 世子の 命을 받아 星州 八莒縣에서 明나라 總兵 劉綎과 戚金을 問安하였다. 宣祖 27年(1594 A. D.) 東岡 55歲되던 正月에 全州의 世子에게 復命하고 4월에 司憲府 大司憲으로 전직되었으며 5월에 還都하였다. 6월에는 다시 世子右副賓客으로 임명되고 文科監試官을 역임하였다.

宣祖 28年(1595 A. D.) 東岡 56歲되던 해에는 僉知中樞府事, 弘文館副提學, 司憲府大司憲兼世子左副賓客, 大護軍兼藝文館副提學, 司諫院大司諫, 吏曹參判 등을 지냈고, 同王 30年 2월에 成均館大司成을 거쳐 7월에 王命을 받들어 星州에 주둔한 明나라 提督 麻貴를 訪問하였으며 10월에는 曹禮參判을 拜命하였다. 宣祖 31年(1598 A. D.) 東岡 59歲되던 7월에는 麻貴의 接伴使로 安東을 다녀왔으며, 11월에는 漢城府左尹을 거쳐, 宣祖 32年(1599 A. D.) 正月에 官職에서 물러났으니, 이는 東岡의 30餘年에 걸친 仕宦生活의 實質적인 終止符였다.

그후 仁川에 逍遙亭을 짓고 隱居하던 중, 9월에 刑曹參判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나가지 않았으며, 宣祖 33年 2월에 星州 鄉里를 다녀왔다. 그는 忠州 月嶽山下에 隱居할 뜻이 있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해 11월에는 忠淸道 淸州의 鼎坐山下로 居處를 옮겼다. 宣祖 34年(1601 A. D.) 東岡 62歲되던 봄에 다시 仁川으로 갔다가 겨울에 또 鼎坐山 아래로 되돌아 왔다. 宣祖 35年 閏二月에는 成均館大司成으로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4월에는 弘文館副提學兼世子左副賓客으로 부름을 받고 독촉이 심하자 稷山까지 올라갔다가 病으로 되돌아 왔다. 7월에는 다시 弘文館副提學으로 임명되었으나 곧 사임하여 護軍이 되었고, 10월에는 大司成을 역임했다.

1603年 東岡 64歲되던 2월에는 大護軍을 역임하다가 病으로 되돌아 왔다. 여름에 다

시 나라에서 불렸으나 나아가지 못하고, 이 해 11월에 淸州 鼎坐山 아래 寓舍에서 세상을 떠났다.⁶⁾

牧使 韓百謙이 訃音을 듣고 달려와 몸소 정성껏 喪事를 다스려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宣祖께서 東岡의 訃音을 들으시고 哀悼하여 資憲大夫 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春秋館事,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世子左賓客을 贈職하셨다. 이는 東岡이 扈聖原從一等功臣인 까닭이다.

從子 行可, 忠可, 門人인 李堉 등이 棺을 故山에 모셨는데, 遠近의 士子들이 와서 슬퍼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 東岡은 일찌기 孔子의 畫像을 얻어 초하루, 보름이면 벽 위에 모셔 놓고 焚香瞻拜하였는데, 비록 벼슬 길을 따라 外地에 있을 때도 빼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에 門人들이 孔子의 畫像을 本州의 鄉校에 藏하였다.

그 해 十二月一日 宣祖께서 禮曹佐郎 閔德男을 보내어 祭하게 하였고 이듬해 二月四日 지금의 巴谷蔓里 先山 坎坐之原에 장사지냈으니 곧 先生의 七代祖妣張氏墓下였다. 寒岡 鄭先生이 詩로써 이를哭하였으니,

退陶正脈終天慕
山海高風特地歛

의 句가 있다. 1611年 4월에는 會寧의 선비들이 鰲山書院을 세워 위패를 奉安하고, 崇禎 元年 2월에는 檜淵書院에서 鄭寒岡과 並享하여 位板을 모셨다.⁷⁾

이처럼 典型的인 儒學者로서 一生을 마친 그는 不義와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으며 平生을 通해 敬義思想을 몸소 실천에 옮겼을 뿐만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爲人이었다. 東岡 59歲(1598 A.D.) 때 漢城府左尹을 拜命하고 이 해에 柳西厓를 仲敎하는 疏를 올렸다. 西厓는 一世의 重望을 지고 國家의 柱石이 되었던 바 人文弘道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이를 질투하여 모함하고 무고로 얹어 聖德을 迷惑하게 함으로써 東岡이 悲憤慷慨하여 반대파의 혐의도 꺼리지 아니하고 抗章을 올린 것⁸⁾ 등이 그의 이러한 성격을 잘 證明한다 하겠다.

특히 東岡 55歲 때 司憲府 大司憲에 拜命을 받고 宣祖에게 七條의 劄를 올렸는데 이를 보던 그의 人性을 잘 알 수 있으니, 허물을 고치는데 인색하지 말 것, 克己하고 百姓을 保重할 것, 經筵을 자주 설치하여 上下가 서로 전할 것, 일을 대신에게 맡겨 作爲에 大道가 있게 할 것, 人才를 채용함에 있어 資格에 구애받지 말 것, 장수를 뽑아 軍사를 조련할 것, 감사와 수령을 가려서 임명할 것 등이었는데, 批答에 가로되, 爲國의 정성이 지극하니 잘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하시었다. 또 四條의 劄를 올렸는데,

6) 金光淳, 前掲書 pp. 41—44.

7) 東岡集 卷之八, 東岡先生年譜 pp. 23—24.

8) ibid. p. 23.

經筵을 열고 世子를 보좌하고 人心을 結合하며 言論의 길을 넓힐 것 등이었는데, 宣祖가 답해 가로되 얻어보니 정당한 理論이라 多幸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持敬工夫에서 터득한 典型的인 儒學者로서의 강직하고도 청빈한 그의 人品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27歲(1566 A. D.)되던 해에 曹植의 神明舍圖를 보고 心性의 擬人小說이며 儒學小說인 天君傳을 지어 君子로서의 心身修養은 모름지기 敬義思想에 있음을 주제로 부각시킨 名作을 남겼고,⁹⁾ 또한 51歲(1590 A. D.)되던 겨울에는 續綱目을 撰하였으며,¹⁰⁾ 現存하는 그의 文集 18卷에는 經筵에서 講義한 內容과 劄와 疏가 특히 많이 收錄되어 있으며 여느 文集과 같이 漢詩도 收載되어 傳하고 있다.¹¹⁾

III. 思想的 志向과 治世觀

東岡은 眞樂堂 金就成의 門下에서 修學하고 慕齋 金安國, 河西 金麟厚 등과 交遊하였으며,¹²⁾ 當時 士林의 尊敬을 받던 七峯¹³⁾과 어려서부터 書冊을 貴히 여겼던 郭氏夫人¹⁴⁾ 사이에서 태어난 까닭에, 어려서부터 양친의 人格과 訓導에 힘입어 氣質이 端雅하고 言辭遊嬉가 凡兒와 달랐다. 8歲에 아버지으로부터 글을 배우게 되자 誦讀을 극진히 하여 잠시도 게을리 하지 않았고, 하루라도 쉬게 되면 울면서 가르침을 청하였다.¹⁵⁾ 한다.

그는 15歲 때에 沈碑賦, 擁腫木賦, 鏡無見疵之失賦 등을 지을 정도로 조숙했으며¹⁶⁾ 당시 一世를 壁立千仞의 기상으로 俯視하였으며, 七峯과도 交分이 있었던 南冥 曹植의 外孫婿가 되어¹⁷⁾ 24歲되던 겨울부터 南冥의 門下에서 修學하며 性理의 學問을 배우게 되었는데, 南冥은 雷天이란 두 자를 내려 大壯의 기상을 기꺼워하였으며, 또 교만한 마음을 경계하고자 항상 차고 다니던 惺惺子라는 金鈴을 풀어내리고¹⁸⁾ 大成을 기약하였다. 그 후 敬과 義를 중시하고 절개를 숭상하는 南冥의 學風이 東岡의 人格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니 후일 壬亂과 黨爭의 파란 속에서도 信念을 굽히지 않고 주장을 관철할 수 있었던 바탕이 실로 여기에서 형성되었다 할 것이다.¹⁹⁾

9) ibid. p. 21.

10) ibid. p. 3.

11) ibid. p. 19.

12) 金光淳, 前掲書, op. cit. pp. 41—44.

13) 東岡全集, op. cit. p. 421.

14) 東岡集 卷之八, 東岡先生年譜, p. 1.

東岡全集, op. cit. p. 421.

15) 東岡集 卷之八, 東岡先生年譜 p. 1.

16) 東岡全集, op. cit. p. 422.

17) ibid. p. 423.

18) ibid. p. 424.

19) 金光淳, 前掲書 p. 44.

東岡이 32歲되던 해에 처음 承文院에 벼슬하여 免新禮를 행할 때 先進諸公이 不敬之藏로 先生을 시험하자 先生은 士子의 持身之道가 아니라 하여 자리를 박차고 나왔으며²⁰⁾ 후일 己丑獄事에 연루되어 會寧으로 귀양갔을 때도 조금도 얼굴 빛에 나타내지 않고 조그마한 암자를 얹어 놓고 문 위에 完齋라는 현판을 달아 完人의 학문에 힘썼으며 退溪가 손수 쓴 思無邪, 毋不敬, 毋自欺, 慎其獨의 12字를 벽 위에 붙여 놓고 날마다 그 속에서 讀書하였다²¹⁾고 한다.

34歲부터 經筵에 참석한 그는 存心養性, 즉 心學에 관한 발언을 많이 했는데 그 취지는 대개 天下의 治亂은 임금의 한 몸에 달려 있고, 한 몸의 得失은 마음을 잡고 있는가의 與否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여 마음을 잡아 바르게 되면 만사가 바르게 해결되는 것이므로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는 일이 곧 나라를 바로 잡는 출발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宣祖의 마음을 바로 잡기 위하여 聖賢의 經典과 事例를 열거하여 강의하였는데 특히 그는 主敬工夫가 마음을 바로 잡는 길이라고 하여 夙興夜寐箴, 敬義箴, 夜氣箴 등 敬에 關한 文字를 열심히 읽으라고 권하였다.²²⁾ 宣祖 7년에는 定志箴, 講學箴, 敬身箴, 克己箴, 親君子箴, 遠小人箴의 六箴을 스스로 지어 임금에게 올렸으며, 同王 18년에는 御書存心養性箴을 지어 올리기도 하였다. 그의 經筵講義는 대부분 心學에 關한 것이었다.

東岡은 黨爭이 발생하여 조정이 분열되는 시기를 당하자 當쟁의 禍를 막아보려고 百方으로 노력하다가 도리어 黨人의 禍를 입기도 하였는데, 그가 제시한 黨爭終熄 方案은 조정에서 可否를 논의할 때 是是非非에 뛰어들게 됨은 理勢의 自然이고 分黨 때문이 아닌 것이니 다만 在上者가 公私 是非의 所在를 분명하게 가려서 是非의 大分에 眩惑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是是非非를 黨論으로 의심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私情을 가지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여 事體를 무너뜨리려는 증거가 탄로되는 자는 당연히 抑制하되, 그 過失을 폭로한 다음에야 朝廷이 安靖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임금이 위에서 建極하여 是非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當쟁의 격화를 두려워하여 是非를 따지지 말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是非를 밝히는 것이 當쟁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²³⁾

東岡은 東西分黨 以後 스스로 是非를 가리고 공정하게 조정에 나섰으나, 이미 분열로 치닫는 政局을 혼자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忠君愛國의 정신

20) 東岡集 卷之八, 東岡先生年譜 p. 3.

東岡全集, op. cit. p. 426.

21) 東岡集 卷之八, 東岡先生年譜 p. 17ff.

東岡全集, op. cit. p. 496ff.

22) 東岡集 卷之八, 東岡先生年譜 p. 6.

23) ibid. p. 6ff.

東岡全集 p. 465.

은 前後 6次에 걸쳐 올린 時務案²⁴⁾에 잘 나타나 있으니 宣祖가 그의 時務案의 建議들을 거의 政策에 반영한 것도 오로지 그의 愛國衷情을 알았기 때문이다.

壬亂 7年の 風塵 속에서 宣祖와 世子를 번갈아 扈從하였던 그는 일찌기 宣慰使가 되어 日使 玄蘇를 應待하였고, 壬亂 당시에는 接伴使가 되어 明國 贊堦 袁黃, 明國 提督 麻貴 등을 영접하였는가 하던 問慰使가 되어 明國 經略 宋應昌을 방문하기도 하여 外交에도 놀라운 수완을 발휘하여 亂局의 타개에 앞장을 섰던 것이다.

또한 그는 임금의 잘못을 諫爭할 때에는 비록 죽음이 目前에 닥쳐도 屈하지 않았으니, 太祖 次妃 神德王后 康氏의 祔廟를 모든 朝臣이 찬성하였으나 홀로 반대하여²⁵⁾ 衆論에 영합하지 않았던 것이나, 前述한 바와 같이 柳西厓가 群小輩의 모함으로 身上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그를 위하여 변명해 주는 사람이 全無함에도 불구하고 東岡만이 홀로 抗章을 올려 그 억울함을 호소함으로써 宣祖로 하여금 생각을 돌리게 한 것²⁶⁾과 珍島 郡守 李銖가 當時의 權勢家였던 尹斗壽에게 數百石의 쌀을 賂物로 바쳐 政院이 이를 탄핵하였으나 西人의 領袖였던 鄭澈의 비호로 宣祖의 下敎가 溫柔하여지자 임금의 노여움을 무릅쓰고 劄를 올려 이를 諫爭한 것²⁷⁾ 등은 剛直한 그의 人品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이 때문에 그의 諫爭은 흔히 唐나라 陸贄(宣公)의 그것에 비유되었고²⁸⁾ 모든 政治問題에 參涉하면서도 始終 完節을 保全하였기 때문에 흔히 完人으로 불리어지기도 하였던 것²⁹⁾이다.

禮法에도 밝았던 그는 神德王后의 祔廟³⁰⁾를 비롯하여 宣祖의 祖母였던 安嬪의 移祀事³¹⁾와 仁宗의 妃였던 仁聖王后의 喪을 당하여 비록 遺命이 있었더라도 白帽帶로 視事할 것을 建議한 것³²⁾과 禪後 陳賀之非³³⁾ 등은 禮學者로서의 그의 또 다른 面貌를 보여 준다 하겠다.

寒岡 鄭述는 그가 撰한 祭文에서 東岡의 天品을 일러 天資超邁 氣宇溫粹 水月襟懷和而能剛이라 하였으며, 그의 兀獨한 素志를 일러 自然을 좋아하여 오직 丘林에 뜻이 있었으며 세상의 紛紛한 榮華는 浮雲과 같이 여겼다고 하였고, 그의 素養을 일러 自少

24) 東岡全集 pp.510—512, 517, 519, 523.

25) 東岡集 卷之八, 東岡先生年譜 p. 15.

26) ibid. p. 57.

東岡全集, op. cit. p. 524.

27) 東岡全集, op. cit. p. 460ff.

28) 東岡集 卷之九, 東岡先生行狀 p. 60.

29) 東岡全集, op. cit. p. 497.

30) 東岡集 卷之八, 東岡先生年譜 p. 15.

31) ibid. p. 12.

東岡全集, op. cit. p. 454ff.

32) 東岡集 卷之八, 東岡先生年譜 p. 12.

東岡全集, op. cit. p. 457.

33) 東岡集 卷之八, 東岡先生年譜 p. 14.

東岡全集, op. cit. p. 467.

至老로 화내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書冊밖에는 어느 한 가지도 좋아하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의 愛國表情을 일러 臨事慷慨하여 거리끼는 바가 없었고 謀猷은 懇切하고 論議는 堂堂하며 誠忠은 굳세고 지혜로워 陸贄와 짝한다 하였으며, 그의 恬退之勇을 일러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은 비록 질설하지만 벼슬에 대한 정리는 마치 잠시 기탁하는 것과 같이 여겨 벼슬의 임관 명령이 내릴 때마다 사양하여 나아가기를 꺼려하였다 하고, 또 太平할 때나 苦難에 處했을 때나 한결같이 節操를 지켰고, 늘 園圃에 寓居하면서 非凡한 재주를 숨기고자 하여 조금도 自慢하는 빛이 없었으며 또한 晩年에는 공을 시기하여 모함하는 자가 많았으나 조금도 노여워하지 않고 修身을 確固히 하여 흔들리지 않았다³⁴⁾고 한다.

東岡의 이와 같은 人品은 그의 師友들에게서 영향을 입은 바 컸으며, 특히 南冥은 그의 精神的 支柱로서, 寒岡 鄭述는 그의 竹馬之友로서 東岡에게 미친 영향이 至大하였으리라 생각된다.

南冥은 當世의 師表로서 草野에 隱居하여 士林의 崇仰을 받고 있었는데, 東岡을 한번 보고 外孫婿로 삼았으며,³⁵⁾ 金鈴을 내려 東岡을 격려하였다.³⁶⁾ 또 그가 거처하던 雷龍亭, 山海亭의 창문 벽에 敬義란 두 글자를 써 붙여³⁷⁾ 이를 重視하였던 바 東岡은 이 敬과 義를 天君傳에서心を 바르게 하는 要諦로 파악하였으니 南冥이 東岡에게 미친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寒岡 鄭述는 退溪의 門下에서 修學한 一世의 巨儒로 東岡과는 同鄉이었다. 일찍이 東岡은 그의 學問과 德望을 들어 宣祖에게 천거하였으며,³⁸⁾ 東岡이 死去한 후에는 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 하여³⁹⁾ 손수 行狀을 집필하였다.

그밖에 同門의 先輩인 德溪 吳健⁴⁰⁾ 守愚 崔永慶⁴¹⁾ 등과의 親交가 文集에 보이며 東岡의 祭文을 지은 자로는 柳成龍, 鄭琢, 朴惺, 徐思遠, 韓百謙 등이 있다.⁴²⁾

東岡은 文章이 詩보다 뛰어났는데 그의 文章은 詞章家의 그것과는 달리 心學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簡明함에 특색이 있으며 後人은 東(東岡) 愚(愚伏 鄭經世) 蒼(蒼石 李堧) 木(木齋 洪汝河)이라 하여 嶺南 四大 文章家의 첫번째로 꼽기도 한다.⁴³⁾

그는 일찍이 宣祖에게 蘇東坡의 文章은 偉麗하나 그 心術이 不正한 故로 君子의 道

34) 東岡集 卷之八, 東岡先生年譜 pp. 2-4.

35) 東岡全集 p. 423.

36) 張志淵, 朝鮮儒教淵源, 柳正東譯(서울: 三星文化財團出版部, 1975) p. 160.

東岡全集 p. 424.

37) ibid. p. 160.

38) 東岡集 卷之八, 東岡先生年譜 p. 8,

東岡全集, op. cit. p. 436.

39) 東岡集 卷之九, 東岡先生行狀 p. 59.

40) 東岡全集, op. cit. p. 423ff.

41) ibid. p. 497.

42) 東岡集 卷之八, 東岡先生年譜 附錄.

43) 東岡全集, op. cit. 解題 p. 8.

를 아는 者는 볼 것이 못되며, 응축한 선비들이나 혹 보는 것이다 하여⁴⁴⁾ 正統 儒學者의 入場을 견지하였으며 經筵에서 임금이 어떤 책을 가까이 하는가 묻자 오직 近思錄과 朱子書節要를 거듭하여 읽을 따름이라고稟하고, 이 二書가 學者에게 심히 결실함을 奏하기도 하였다.⁴⁵⁾

또한 그는 皇天이 百姓을 爲하여 君을 세움은 天下가 一人을 받들라는 뜻이 아니고 오직 一人이 天下를 다스리게 하였을 따름이니 이 뜻을 모르고 王權을 남용하면 危亡의 禍를 입게 된다고 하여 民本을 根底로 한 德治를 주장하였고⁴⁶⁾ 낡은 것은 마땅히 更張을 통하여 새롭게 하여야 하며 義理에 비추어 보아 고쳐야 마땅한 것을 잠시의 安逸을 위하여 고치지 않음은 곧 僞妄이라 하여⁴⁷⁾ 과감한 政治改革을 건의하였으며, 특히 春秋를 講하는 자리에서 宣祖가 春秋左氏傳 읽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帝王이 天下를 다스리는 大經大法은 春秋에 다 갖추어져 있으므로 오직 여기에 침잠하여야지 左氏의 쓸데없고 교묘한 말에 留心하면 세월만 낭비하고 無益하다⁴⁸⁾하여 儒敎 本經의 重要性을 강조하였다.

東岡은 二十餘年 동안 經筵에 참석하여 當時 第一의 講官으로 추대되기도 하였다⁴⁹⁾ 그는 經筵의 거의 대부분을 敬一字에 主力하였는데, 東岡의 天君傳도 이러한 思想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의 儒學思想 가운데 敬에 대한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君王은 學問을 통하여 스스로 克己復禮하고, 群臣을 對할 때나 물러가 深宮에 居할 때나 늘 敬一字로써 처신의 道를 삼아, 君王의 心中에 항상 敬畏한 뜻을 지니고 있으면 上下가 바르게 되어 德治가 이루어지며, 持敬의 着手處는 主一無適, 整齊嚴肅, 常惺惺法, 心收斂不用一物 등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整齊嚴肅이다⁵⁰⁾라고 하였고 또 天命이라는 것은 나에게 부여된 天理 卽 仁義禮智이며, 天과 人은 一理로서 天이라는 것은 高遠한 것이 아니고 方寸間에 있는 것으로 잃어버리지 않고 능히 保存하면 天이 곧 나에게 있으며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는 방법은 모름지기 敬에 있다⁵¹⁾라고 하였다.

孟子는 學問之道無他 求其放心이라 하였던 바 求放心의 緊要處는 오직 敬에 있으니 一動靜 一語默에도 감히 自暇自逸하지 않는 것이 곧 敬이다⁵²⁾라고 하였다. 天理를 보존하는 것이 곧 敬身의 本領이며 敬身은 조심하여 항상 天理를 보존하여 있는 것이고 克己는 私欲이 일어나는 기미가 보이면 勇猛工夫로써 人欲을 단제하는 것으로 비유되

44) 東岡集 卷之八, 東岡先生年譜 p.7.

45) 東岡集 卷之九, 東岡先生行狀 p.23.

46) ibid. p.15.

47) ibid. p.7.

48) ibid. p.29.

49) 張志淵, op. cit. p.204.

50) 東岡集 卷之九, 東岡先生行狀 p.4.

51) ibid. p.5.

52) ibid. p.7.

며 敬身은 항상 관리를 잘하여 無病하게 하는 것이고, 克己는 病이 들면 약을 써서 치유하는 것과 같다⁵³⁾라고 說破하였다.

學問은 다만 文義를 밝힌 후 躬行할 따름으로 文義를 深釋한 연후에 몸으로 行하여 체득함으로써 학문의 본 뜻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 다만 文字만 깨우쳐 한 자도 틀림이 없을지라도 躬行함이 없다면 아무 유익함이 없는 것이므로 人主는 모름지기 敬德으로써 이에 착수해야 한다⁵⁴⁾고 했다. 또, 敬一字는 一心의 主宰이며 萬事의 根底이니 모름지기 이로써 體를 세우고 事物에 接하여 이로써 用하지 않는 것이 없음은 무릇 學者는 물론이요 君王에게는 더욱 중요한 것이니, 後世의 君主들이 無道한 것은 오직 敬에 어둡기 때문이다⁵⁵⁾라고 하면서 그의 敬思想에 對한 主張을 피력하고 있다.⁵⁶⁾

그가 平素 經筵에 참석하여 講한 수많은 內容이 그의 文集에 收錄되어 있는데, 특히 34歲되던 해에 조정의 부름을 받았으나 굳이 사양하다가 允許되지 아니하매 이에 그職에 나아가서 講한 것이 그의 思想 내지 治世觀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으니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皇明 神宗皇帝 萬曆 元年(1573 A. D.) 東岡 34歲되던 九月二十一日에 入侍하여 思政殿에서 講하였으니, 商書의 湯誓篇을 講하매 榻前에 나아가 啓奏하여 가로되, 이른바 세상의 변하는 것들은 人事의 得失이 한갓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天地의 氣數도 盈虛消息이 있고 世道에도 升降이 있으며 人心에도 厚薄이 있으나, 그러나 하늘의 이치와 백성의 彝倫은 萬古에 변치 않는 것이니 그리하여 君王은 一身에 極을 세우고 萬民을 거느려 引導하는 것입니다. 太初에는 異道가 없었으므로 虞·夏·商代에는 세상이 비록 변하였지만 人君이 爲學의 心法을 보존한 즉 처음과 끝이 한갓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人心은 오직 위태롭고 道心은 오직 은미하여 오직 精하고 한갓된 진실한 그 中을 잡으라고 한 것은 舜과 禹의 心法이었으며, 禮로써 마음을 경계하고 義로써 일을 다스려 백성에게 中을 세우는 湯의 心法이었습니다. 禮로써 마음을 경계한다함은 곧 오직 한갓된 것이요, 義로써 일을 다스린다함은 오직 정한 것입니다. 中을 세운다 함은 즉 中을 잡음이니 대저 爲治의 道는 이 心法에서 말미암지 않음이 없으며 三綱과 五常의 道理는 萬古에 뻗쳐 바뀌지 아니하였습니다. 孟子께서 말씀하시기를 舜은 諸馮에서 태어나셨으니 東夷의 사람이요, 文王은 岐周에서 태어나셨으니 西夷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前聖과 後聖의 法度가 한가지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나라는 비록 동쪽에 치우쳐 있습니다만 건하께서는 聖明의 자질과 총명한 예지로써 仁義禮智의 性에 밝으시니 진실로 舜文에 同符하십니다. 그러므로 帝王의 학문에 뜻을 두시고 舜文의 心法을 自得하시어 行하시면 우리 東國 百姓의 性品이 舜百姓의 性品과

53) ibid. p. 12.

54) ibid. p. 25.

55) ibid. p. 34.

56) 金光淳, 前揭書 pp. 44—50.

符습될 것이니 어찌 虞・周의 治를 우리 東國에서 다시 볼 수 없겠습니까?

전하께옵서 밝은 임금의 法을 따르려 하시오면 멀리서 구하여 기다리지 마시옵고 다만 今日 進講의 글에서 成湯의 法을 취하시옵소서. 孟子께서 말씀하시기를, 湯이 군사를 일으킴에 있어서 湯武의 聰明之質이 역시 堯舜의 純全함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그 학문이 精을 알고 行하여 克己復禮하여 스스로 반성하여 실천하니 곧 그 성공한 까닭이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주자께서는 이르시기를, 湯이 군사를 일으켜 성공한 것을 자세히 상고해 볼 것 같은데, 堯에 有하되 禮로써 心을 制하고 義로써 事를 制한다 하고 또 聲과 色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貨利를 殖하지 아니한다 하고, 또 諫을 좇아서 어기지 아니하고 惡물을 고치는 데 인식하지 않는다 하였으며 또 스스로 살펴서 사람에게 미치지 못한 것은 덜 갖춘 것처럼 하였다 하였으니, 大學에 그 盤銘의 記 있으며 苟日新하고 日日新하다 하였으니, 湯의 心이 새롭고 또 새로와 일시라도 이에서 끊어지기 같았고, 대거 湯의 實用工夫의 處가 詩에 남아 있으며 즉 聖敬日躋하고 昭格 熒熒하며 格于上下한다 하였으니 대개 그 用工夫의 要가 敬의 一字에 있을 따름입니다. 心에 敬을 存하여 오랫동안 지니고 그 効를 그치지 아니하여 上下를 밝힌 것이 成功하게 된 所以입니다. 그 처음의 힘써 간절히 행할 곳은 오직 聲과 色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貨利를 不殖하는 데 있을 따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마치 너무 앞서 湯의 德을 論함이 미진한 것 같으나, 이 本原의 地에서 湯은 먼저 이에 用力하여 本原之地로 하여금 一毫라도 私邪의 가림이 없게 하여 虛明澄澈하였으므로 志氣가 淸明하고 義理가 昭著하여 聖敬日躋의 工夫로써 베푸는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옵서 보시고 敬의 一字를 用力하여 日用之間이 항상 敬할 것 같은데 전하께옵서 安居無事하실지라도 嚴恭敬畏하며 天命이 自度凜然할 것이니 어찌 항상 淸한 것 같지 아니하겠습니까? 宗廟之中이나 朝廷之上에서 人慾을 줄이지 않으시면 私邪의 念이 그 틈을 犯할 것이오니 靜하시며 敬을 主하시옵소서. 群臣을 對하시어도 敬하시옵고 물러나 深宮에 머무실 때도 반드시 敬하실 것이며 講書의 자리에 이르러서는 辨難을 되풀이 하시어 義理를 밝히시옵소서.

전하의 학문이 高明하시어 文義를 밝힘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義理가 無窮하시어 設講하는 자가 오히려 늦게 깨우침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政事를 奏할 지라도 낯빛을 부드럽게 하시고 거들 헤아리실 것이오며, 도대체 그런 것 이외의 일일지라도 어그러짐을 탄식하시어 聖心을 밝히시옵소서. 事理를 分明히 見得한 이후에는 이미 窮理의 일이기때 그 要處가 主敬工夫에 있을 따름이기때 이것이 그 本領이 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약 능히 이것에 聖意를 深加하시어 用力하신다면 成湯의 反身之功도 다만 이에서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臣은 道를 알지 못하고 다만 師友들에게서 들은 바를 君父의 앞에 盡達할 뿐이오니, 이것은 곧 臣의 갈아 아니옵고 옛날 聖賢의 말씀일 따름입니다. 원컨대 臣이 미천해도 그 말을 가껴이여

기지 않으신다면 宗社의 다행이옵고 臣의 幸福이겠읍니다. 臣의 재주가 보잘 것 없사옵고 言語가 拙訥하여 論思의 列을 갖추기 부족하오나 愛君憂國의 마음은 天理에서 나온 것이니, 民彝가 비록 어리석고 賤한 곳에 있으나 學問之事에 이름이 있듯이 臣이 비록 愚昧하여 이론 바가 없으나 이것에 종사한 지 십년이나 되옵고 粗雜하나마 들은 바가 있사옵기에 감히 朝夕으로 나아가 그 聖賢의 說하신 바를 아뢰고자 하나이다. 다만 전하의 聖志가 과연 帝王의 學에 뜻을 두시고 三伏의 治를 따르고자 하시는지 알 수 없사오나 臣이 비록 지극히 愚陋할지라도 日月의 빛에 의지하여 힘써 노력하는 바와 같으시다면 짧은 재주나마 皇猷를 도울 수 있사오나, 만일 그렇지 않으시다면 一身의 安寧을 꾀할 따름입니다. 곧 臣의 精誠이 愚拙하여 大人의 格心之學이 없사와 聖志를 開發할 수 없사옵고 그 배운 바 또한 아뢴 바와 같이 쓸 데 없는 것으로 奇論異聞도 없이 天聽을 어지럽게 하였사옵고 돌아보아 職을 더럽히지나 않았는가 두렵나이 다. 원컨대 너그러우신 聖恩으로 微衷을 굽어 살피시옵소서라고 하였다.

이 때에 鄉約을 行하기를 건의하되 혹은 행하기 어렵다는 말도 있고 하였는데 先生이 啓하여 가로되 鄉約을 어찌 행할 수 없으리까마는, 다만 이 일은 모름지기 근본이 있어 사람이 몸으로 행하고 마음으로 얻는 것은 主力하여 겉으로 따르게 된 후에야 시행하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만 이 글만 갖춘 것일 따름입니다. 지금 만약 이를 시행하려 하시오면 臣은 다만 聖志로써 추진하실 것을 아뢴 따름입니다. 만약 鄉約을 지금 시행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말이 있다면 이는 곧 크게 해로운 일입니다. 前日 經筵官이 朱子의 鄉約을 행하기 어려울까 두렵다라는 말을 인용한 적이 있으나 이는 진실로 그렇지 아니하니 教化는 모름지기 위로부터 내려가는 것이라서 朱子는 下位에 있었기에 어려웠던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행하여 얻을 수 있는 자리에 계시온데 어찌 어렵겠사옵니까? 오직 勉勵할 뿐입니다. 과연 진실로 행하기 어려웠다면 朱子는 어찌하여 增損呂氏鄉約을 後世에 전하였겠습니까? 朱子의 뜻은 실령 이를 행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王者가 이를 취하여 세상에 퍼는 것을 기다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가 금일 이를 行하시는 것은 이 곧 朱子의 道이니 今일에 시행한다면 어찌 융성하지 않으리까? 엿드려 바라옵건대 이에 힘쓰시옵소서⁵⁷⁾라고 하였다.

東岡은 그 해 十月에 또 上劄하여 主敬工夫를 상세히 論하였는데 이에 이르기를, 전하의 총명은 하늘이 내신 바요 예지는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시어, 臨政하신지 于今 6년에 만방함이 갖추어졌고 天下가 平安하더 그 行할 바 일이 없어, 앉아서 그 成功을 즐기고 계십니다. 그러나 위로는 하늘이 조짐을 보이지 않으시고 아래로는 百官이 게을러 官의 기강이 풀어져 정치의 효과가 미치지 않음이 저와 같습니다. 전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실 것도 없이 빨리 도모하시옵소서. 臣은 가만히 생각컨대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요행으로 이루어서는 아니되고, 政治는 반드시 修己를 먼저 하여야 不世

57) 東岡集 卷之八, 東岡先生年譜 pp. 4-5.

의 大業을 이룰 것이로되, 지극히 비묘한 本心은 保持하기 어렵고 百事가 廢墮하여 지기는 쉬운 것이라 보잘 것없는 사사로운 마음도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먼저 그 어려운 바를 행하고 다음 쉬운 바를 닦을 것이로되, 그 어려운 것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그 쉬운 바를 먼저 한즉, 本末이 倒置되고 輕重이 차례를 잃으므로 비록 부지런히 일에 힘쓸지라도 마침내는 별로 보탬이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비록 生知의 資가 있고 高世의 卓見이 있습니다만 學問 自修之功의 居敬窮理와 克己復禮하여 心을 받치우고 意를 정성스럽게 하는 修身齊家의 効에 있어서 혹은 옛날 聖王에게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어 方寸의 마음이 事物을 應待함에 人慾에 純粹하지 못한 바가 있고 또 혹은 未盡한 바가 有하여 好善之心이 물들어 감에도 嫉妬하는 마음이 깊지 아니하고 질박하지 않다면 무릇 政令을 배품에 있어 누가 복종하겠나이까?

百僚의 四方을 다스림에 對한 믿음이 隆盛하지 못함은 그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열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옵서는 今曰의 治를 몸은 反省하는 도리를 깊이 求하시고 생각하시어,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시고 저녁에는 늦게 침소에 드시며 靜하고 한갓된 그 中을 살피서서 本源을 깊이 아시고 病痛을 분명히 제거하시어 廓然大公으로써 조금의 사사로움도 용납하지 않으셔서 政令을 施行함에 이치에 맞게 하시고 賢人을 起用하고 奸邪한 者를 멀리 하시어 家志가 다 복종하게 하시면 국가의 일에 있어서 장차 전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그 힘을 쓸을 要處가 書冊에 실려 있으므로 臣은 청진대, 그 중 전하의 心身에 가장 긴절한 것을 골라 날로 그 說을 반복하시옵소서.

臣이 스승에게 듣기로 太公이 武王에게 告하여 가로되, 敬이 怠를 이기는 者는 吉하고 怠가 敬을 이기는 者는 滅하며, 義가 欲을 이기는 者는 從하고, 欲이 義를 이기는 者는 凶하다 하였으며, 周公은 殷王 三宗의 德을 일컬기를 모두가 嚴恭寅畏로써 감히 首가 되어 安寧을 누리려 하지 않고 無逸一篇으로 丁寧코 誠을 가르치되 敬畏를 숭상하고 이 마음을 보존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대개 敬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 숙연하여 두려워 하는 바가 있음의 이름이요, 整齊嚴肅은 그 下手의 用工處로서 敬字의 功은 動靜을 꿰뚫고 表裏를 徹하여 深宮에 계실 때라도 반드시 敬할 것이요, 群臣을 對하실 때도 반드시 敬하시어 無事時에는 敬이 表裏에 在하고 有事時에는 敬이 事物에 應하여 있어 진실로 능히 敬을 지니고 있어 감히 스스로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곧 萬善이 다 갖추어진 지니 修己治人의 道가 이밖에 더 없는 것입니다. 열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이로써 試圖하시어 몸으로 닦으셔서 나의 持敬存心하는 바로써 誠을 바로 하고 克己復禮하여 이와 같은 功을 이룬 者 있었는가? 하고 이르시며 분명히 立志하고 赫然히 날로 새롭게 하시어 마음을 비워 善을 받아들이신다면 항상 어찌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겠습니까? 곧 聖德을 날로 닦아 깨달음을 맺게 된다면 治効의 脣성함

을 힘들이지 않고 이룰 수 있나이다⁵⁸⁾ 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宣祖가 下問하시기를, 曹植의 門下에서 授業하였으니 반드시 들은 바가 있을 것이며 또 너의 學問이 독실하므로 모름지기 平日의 學問하는 道를 陳言하여 내 듣고자 하노라 하니⁵⁹⁾ 東岡이 對答하여 달하는 데서 東岡의 思想的인 志向을 알 수 있으니 이를 보면,

學問에는 別 妙法이 없사오니 孟子가 이르기를, 學問의 道는 放心을 막는 것 이외에는 구할 바 없다 하였으며, 先儒가 이르기를 敬의 一字는 지극한 要處라 이른바 警異라는 것은 畏를 가까이 하고 嚴恭寅畏하여 감히 스스로 게을러지지 않는 것이니 이 心이 常存한 즉 學問이 나아간다 하였읍니다. 그러나, 이 學問이 가장 절박한 것은 들었었다 이어졌다 하여 마침내 이루지 못하는 것이니, 古人도 역시 이것을 근심하여 謝上蔡는 항상 책을 비치하여 두고 日用的 視聽言動이 禮인 것과 禮가 아닌 것을 기록하였읍니다. 古人의 切實用工한 類도 이와 같았으니, 대저 學問은 尙遠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天道性命의 道를 말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니, 다만 日用的 動靜語默間에 조심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고 잠시라도 間斷을 깨닫게 되면 곧 수습하여 이와 같이 오래 하면 자연히 나아가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⁶⁰⁾

臣이 夙興夜寐箴을 보오니 日月의 工夫에 심히 절박하였아온대 李滉이 圖를 만들어 四節마다 그 用工할 곳을 排列하여 매우 자세하였읍니다. 臣은 學問이 經歷된 바 없고 또 오래지 않아 成就한 바 없으나 그 用工의 어려움을 아오니, 匹夫가 山林에居하여 일 없이 靜坐하여 一心이 미묘하게 됨은 행복한 자를 다스리는 것같이 쉬우나 이 모름지기 살피지 않으면 이미 間斷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저 君王의 총명은 진실로 凡人的 그것과 다르오나 그 어려움을 알고 間斷의 患을 두려워하는 것은 凡夫의 그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인데, 하물며 높고 귀한 곳에 處하여 제시면서 만약 密切하게 保持하여 敬畏를 常存치 않으면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심히 두렵나이다⁶¹⁾라고 하였으니, 이는 곧 그가 學問하는 道에도 持敬工夫가 가장 緊要함을 說破한 것이라고 하겠다.

東岡이 46歲되던 二月에 入侍하여 夕講을 하였는데 講을 마치고 啓하여 가로되, 御書 存心養性 四字를 玉堂에 내리시어 辭를 지어 올리라 함에 東岡은 存心養性의 道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說破하였다. 存心과 養性은 두 가지가 아니니 養性의 道는 그 心을 存하는 데 있고, 存心の 要는 敬이면 足한 것입니다. 持敬의 方策은 先儒가 이미 상세히 論하였으니, 朱子의 敬齊箴이 가장 밝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이 箴을 읽으신 모퉁이에 늘 놓아두시고 유의하신다면 이 곧 存養의 要法인 것임

58) ibid. pp. 6—7.

59) ibid. p. 8.

60) ibid. p. 8.

61) ibid. p. 8.

니다. 그 후 御書 存心養性の 箴을 并序하여 製進하였다⁶²⁾고 한 것에서도 東岡이 持敬工夫에 얼마나 力點을 두고 있었는가를 理解할 수 있다.

이외에도 東岡이 平素 經筵에서 講한 것이 그의 文集 가운데서 매우 많이 보이나, 이들 모두가 君臣을 論할 것 없이 敬義思想을 存崇하여야 君子로서 혹은 治者로서의 完人の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說破하고 있다. 그래서 前述한 바와 같이 深宮에 계실 때라도 반드시 敬할 것이요, 群臣을 대할 때도 반드시 敬하여야 하며, 無事時에는 敬이 裏面에 在하고, 有事時에는 敬이 事物에 應하여 진실로 능히 敬을 지니고 있어 감히 스스로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곧 萬善이 다 갖추어질 지니 修己安人の 道가 이밖에 더 없는 것이다⁶³⁾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東岡의 思想은 물론 治世觀이 平素 主張하는 敬義에 있음을 볼 수 있고, 더구나 南冥의 門下에서 學問을 닦았기 때문에 曹南冥의 神明舍圖에서 主張하고 있는 持敬居義요 專精敬義의 思想과도 一致되며 이러한 것은 곧 程明道의 敬以直內하고 義以方外라는 儒學의 精神 修養法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⁶⁴⁾

Ⅶ. 天 君 傳

1. 梗 概

天君傳의 梗概를 段落 지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13個 段落으로 나누어 진다.

① 崑崙山 아래 有人氏라는 나라가 있어 禮와 義로써 上帝의 德業을 감렸으니 그 임금인 乾元帝의 아들이다.

② 太初 元년에 乾元帝가 下界를 다스릴 者를 물으니, 모두 그의 맏아들을 추천하매 太史로 하여금 策命을 짓게 하다.

③ 元月 甲寅에 乾元帝가 有人國을 맏아들에게 맡기니 백성들이 그를 높여서 天君이라 불렀는데, 初名은 理이고 사람으로 封하여져 心이라 改名하여 胸海에 定都하다.

④ 元년에 天君은 太宰 敬을 腔子 속에 居하게 하여 天君의 宮府를 숙청하게 하고, 百揆 義에게는 太宰와 協同하여 직무에 順應하도록 하다.

⑤ 두 宰相이 마음을 같이 하매 政事가 잘 이루어져 관직을 환폐하게 하는 者가 없었으며, 天君은 두 신하를 버리지 않기로 명심하다.

⑥ 두 宰相이 天君에게 忠誠을 다 하매 群臣들이 和洽하여 國內가 잘 다스려져 萬餘 國이 有人氏의 소속으로 되어 國家가 强盛해 지다.

⑦ 天君이 微行을 좋아하여 向方이 모인해 지자 太宰가 諫하였으나 듣지 않았으며 요망한 신하인 公子 懈와 公孫 傲 등에 의해 太宰 敬이 쫓겨나고 百揆 義도 가버리다.

⑧ 天君은 八駿馬를 타고 해매니, 法宮이 비고 法度가 분터 妖賊 華督 등이 亂을 일으켜 胸海를 습격해 기 쉽게 入城하다.

62) ibid. p. 18.

63) ibid. p. 6.

64) 金光淳, 前掲書, op. cit. pp. 41—54.

⑨ 天君의 군사가 靈臺 밑에서 싸워 敗하니 賊의 괴수 柳跣은 스스로 임금이 되어 方寸臺에 들어와 살게 되매 宮闕은 더럽혀 지고 池殿은 荒涼해 지다.

⑩ 天君이 나라를 잃자 公子 良단이 天君을 따르며 祈招의 詩를 지어 天君을 깨우치다

⑪ 天君은 깨닫고 車馬를 정비하여 군사들을 모으니, 太宰 敬이 天君의 位를 되찾게 할에 天君은 집 안으로 들어가고, 大將軍 克己가 先鋒이 되고 公子 志가 元帥가 되어 血戰하기 百合에 賊을 부너뜨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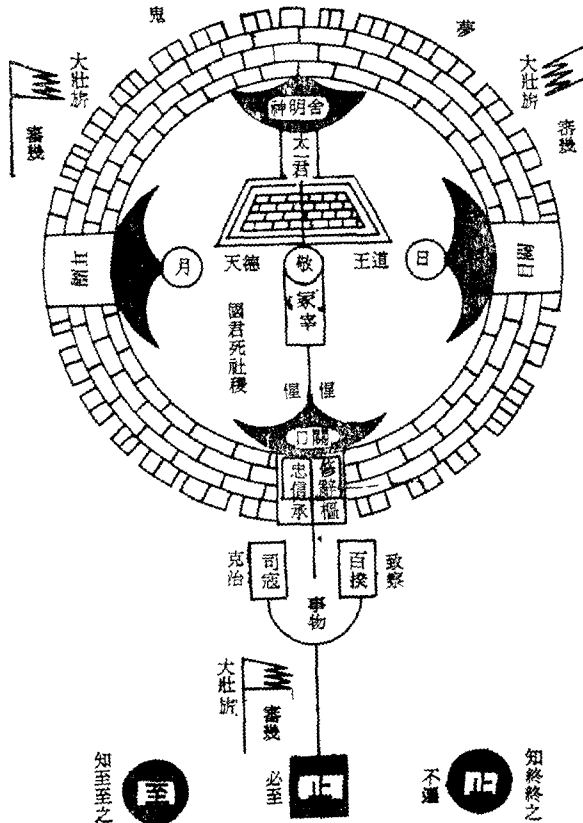
⑫ 天君이 神明殿에서 位를 바로 잡자, 百揆 義가 와서 太宰와 内外를 나누어 다스리는 데 賊의 殘黨들이 침범해 오매 大將軍이 추격하여 소꿉을 없애고 땅을 모두 되찾다.

⑬ 이로부터 나라가 편안하고 各自 직책에 충실하여 나라에 일이 없어지자 天君은 在位一百년에 六龍을 타고 乾元帝의 조정에 拜謁하고 돌아 오지 아니 하다.

2. 創作時期 및 神明舍圖와의 關係

天君傳은 心性을 의인화한 최초의 天君小說로서 愁城誌, 天君演義, 義勝記, 南靈傳, 天君本記, 天君實錄 등 후대의 天君小說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소설사적으로 중요한 位置에 있다.

天君傳의 創作 時期와 動機에 對해서는 東岡集의 年譜에 자세한 記錄이 傳하는데,



神明舍圖

東岡 金宇顙이 27歲(明宗 21年, 1566 A.D.)되던 해에 天君傳을 지었다고 한다. 그리고 南冥이 일찍이 神明舍圖를 撰하고 東岡으로 하여금 天君傳을 짓게 하였다⁶⁵⁾고 한 기록으로 보아 天君傳의 創作時期는 明宗 21年(1566 A.D.)이고, 直接的인 創作 動機가 된 것은 南冥의 神明舍圖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天君傳과의 關係를 考察하기 위하여 神明舍圖를 提示하고 그 神明舍銘을 보면 前面의 圖表와 같은데, 南冥의 自作 說明을 보면 다음과 같다.

太一眞君(天君)이 明堂(天君이 朝會 보는 자리)에서 政治를 베풀에 안으로는 宰(牧)가 主管하고 밖으로는 百揆(義)가 보살핀다. 그리고 承樞(承政院)가 出納하는데 忠과 信으로 辭令을 닦아서 四字符(和・恒・直・方)를 發하고 百勿旃(백 가지의 칠노를 못하도록 하는 것말)를 세웠다. 九竅의 간사함이 三要(허리 밑)에서 비로소 發하는데, 動을 微하게 하여 勇으로써 이기고 나아가서는 가르치고 죽이기도 하여 丹墀(임금의 軒檻 앞)에서 役命(보고하는 것)하니, 堯舜의 日月(太平歲月)이 더러. 三關(口關, 耳關, 耳關)을 閉塞하여 清野(清野戰法)처럼 가이 없게 해서 一心으로 돌아와 같이 침잠하더라.⁶⁶⁾

위에서 볼 때 神明舍圖와 神明舍銘은 결국 君子의 心法을 말하고 있는데 이를 略述하면, 神明舍(마음의 집)에 太一眞君(天君 즉 心)이 있는데, 안에는 敬이 宰宰(政宰)가 되어 內心 修養을 하고, 밖으로는 百揆 義가 事物을 닦아 잘 다스리니 太平하더라는 뜻이다. 이는 곧 程明道의 敬以直內하고 義以方外라는 儒學의 精神 修養法을 일컫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南冥의 神明舍圖를 직접적인 創作動機로 하고 있는 天君傳의 내용 역시 神明舍圖의 이러한 思想과 一致되고 있다.

3. 登場人物

天君傳에서의 主人公 天君은 곧 心의 擬人인데 神明舍圖에서의 太一眞君과 같다. 心を 天君이라고 한 것은, 荀子 天論篇에서 처음 보이는데 心은 中虛에居하면서 以治五宮하니 대저 이를 天君이라 일컫는다⁶⁷⁾고 하였고, 范浚도 그의 心箴에서 心에對하여 君子가 誠을 지니서 능히 생각하고 능히 공경하면 天君은 泰然하고 百體가 命令을 따른다⁶⁸⁾고 하였다.

이 외에 荀子の 解蔽篇에서도 心者는 形之君으로 神明의 主다⁶⁹⁾라고 하였고 淮南子

65) 嘉靖四十五年丙寅 先生二十七歲 作天君傳 南冥先生嘗撰神明舍圖 命先生作是傳(東岡集 卷八, 東岡先生年譜 p. 3).

66) 太一眞君 明堂布政 內冢宰主 外百揆省 承樞出納 忠信修辭 發四字符(和恒直方 建百勿旃 九竅之邪 三要始發 動微勇克 進教賡殺 丹墀復命 堯舜日月 三關閉塞 清野無邊 還歸一戶兩淵(南冥集 卷五).

67) 心居中虛 以治五宮 夫是之謂天君(荀子, 天論篇).

68) 君子存誠 克念克敬 天君泰然 百體從令(范浚, 心箴).

69) 心者形之君也 而神明之主也 出令而無所受令 自禁也(荀子, 解蔽篇).

의 泰族訓에는 心者는 身의 本이요 身者는 國의 本이다⁷⁰⁾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原道訓篇에서도 心者는 五臟의 主다⁷¹⁾라고 하였으니, 心은 곧 形體를 지배하는 君主요, 肉身이 存在하는 基本이며, 精神이 作用하는 主體인 것으로 心은 性과 情을 統攝하는 上位 概念으로서의 天君이란 뜻이다.

마찬가지로 天君小說에서도 天君은 그 말은 바 직무가 君主의 役割을 하는 主人公으로 등장된다. 다만 東岡의 天君傳에서는 心을 天君이라 하였고, 南冥의 神明舍圖에서는 太一眞君이란 다른 이름으로 命名했을 뿐 兩者는 同一한 것이다.

南冥의 神明舍圖에서는 心 즉 太一眞君 아래에, 안으로는 冢宰 敬이 主管하고 밖으로는 百揆 義가 보살핀다고 하였는데, 天君傳에서는 天君 아래에 太宰 敬이 腔子 속에 살면서 天君의 宮府를 肅清하고, 百揆 義는 太宰와 協同하여 직무에 順應하므로 天君의 나다가 잘 다스려져 强盛해졌다는 것은 곧 東岡의 天君傳과 南冥의 神明舍圖가 일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天君傳의 太宰는 春秋時代 吳나라의 벼슬 이름인데 政丞의 뜻으로 神明舍圖의 冢宰와 같은 職이다. 百揆 義는 天君傳과 神明舍圖에서 共히 出現되는 職名으로 百官을 거느리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로 보아 天君傳은 神明舍圖에서의 敬과 義를 重視하는 思想을 그대로 踏襲하여 小說化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天君傳에서의 天君은 天上에서 下降하여 地上을 다스린 후 다시 天上界로 돌아가는 二元性을 띤 人物로서 이는 檀君神話에서 檀君의 出生과 死後 天上界로 上昇하는 패턴과 類似한 것이다. 이와 같은 二元性은 天君의 神聖性 乃至 神格化를 爲한 것으로 人物의 超人像은 成功的으로 描寫되었지만, 現實的인 人物의 描寫가 되지 못한 결함이 있어 小說의 主人公으로는 도리어 後退한 느낌을 준다. 天君傳의 登場人物 中天君 以外의 人物을 忠臣型과 奸臣型으로 兩分할 수 있다. 忠臣型 人物로는 太宰 敬과 百揆 義, 公子 良과 大將軍 克己 그리고 公子 志 등인데, 이들은 後代 天君小說에서 同一한 이름으로나 혹은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등장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세한 考察이 필요하다.

먼저 太宰 敬에 對한 의미를 考察해 보면, 退溪는 朱子가 敬의 意味를 규정한다고 말하는 四個條를 敬의 意味로 파악했다. 즉 朱子가 말하는 四個條란 程子의 主一無適說과 整齊嚴肅說과 謝上蔡가 말한 常惺惺法說 그리고 和靖 尹彥明의 心收斂不容一物說이다. 옳건데 退溪는 敬의 意味를 主一無適, 整齊嚴肅, 常惺惺法 그리고 心收斂不容一物로 규정했다.⁷²⁾ 그러니 敬에 대한 意味 規定에 있어서, 程子, 謝氏, 尹氏의 說이 그 表現은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그 實은 모두 같은 것이라고 退溪는 朱子의 말을 引用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를 붙잡아 敬으로 들어가는 것은 곧 나머지

70) 心者身之本也 身者國之本也(淮南子, 泰族訓篇).

71) 心者五臟之主也(淮南子, 原道訓篇).

72) 退溪集 卷七, 聖學十圖, 第四 大學圖, 大學經.

세 가지로 通하는 길이 된다고 보았다.⁷³⁾ 그러나, 敬의 意味를 규정하는 四個條를 검토해 볼 때 主一無適, 常惺惺法, 心收斂不容一物의 三個條는 主觀인 內心을 規制하는 原理이며, 整齊嚴肅은 客觀的인 外貌에 대한 規制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敬의 意味는 內的 意味와 外的 意味라는 두 側面에서 把握될 수 있다. 그러나 敬의 意味를 內外 兩面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兩者가 분리된 別個의 意味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勿論 아니다. 그래서 天君演義를 비롯한 天君小說에 등장하는 忠臣型 人物은 朱子의 敬의 意味를 規定한 內的 意味인 主一無適, 常惺惺法, 心收斂不容一物을 각각 主一翁, 惺惺翁, 誠意伯으로 擬人하였고, 外的 意味인 整齊嚴肅을 主一翁, 惺惺翁, 誠意伯의 外貌로 高妙히 襲用하여 忠臣型의 主要 人物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들은 모두 敬의 意味를 지녔으므로 天君傳에 나오는 太宰 敬과 같은 人物로 描寫되어 있다. 그래서 天君傳에서의 太宰 敬은 天君이 盜賊에 의해 困境에 처했을 때 구해 주는 忠臣型 人物이며, 後代 天君小說에 등장되는 主一翁, 惺惺翁, 誠意伯도 天君傳에서의 太宰 敬과 같은 役을 맡고 있는 忠臣型의 人物들이다.

다음에는 百揆 義에 대한 意味를 考察해 보면, 義는 儒道의 幹莖으로 四要目 中 利에 해당되며 語義로 말하면 公正하고 宜當한 것이니 그것은 理性으로써 判斷하는 것이다. 그러니 義의 根源은 理性이요, 義의 目的은 公正이며, 義의 行爲는 宜當이다. 즉 根源的 方面에서는 義理라 하고 目的的 方面에서는 正義라 하며 行爲의 方面에서는 義務라 하는 것이다.⁷⁴⁾ 그러므로 梁惠王이 先生은 不遠千里하고 오셨으니 우리나라에 有利한 말씀이 있겠지요 라는 물음에 대해서, 孟子는 王은 何必 利만 말씀하십니까? 오직 仁義가 있을 뿐입니다. 王이 어찌면 우리 나라가 有利할까하면 大夫들은 어찌면 우리 집이 有利할까 할 것이고, 士庶人은 어찌면 내 自身이 有利할까라고 할 것이니, 上下가 모두 私利를 取하려고만 투쟁을 한다면, 國家는 亡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私利心은 반드시 全體를 파괴하는 것이라 人間에게 有利한 것은 오직 公義心이기 때문에 義者는 人之正路인 것이며, 또한 원래 義는 利의 反對 概念이지마는 義의 內에도 利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利의 內에는 義가 있을 수 없으니 그것은 全體의 內에는 個體가 있지만 個體의 內에는 全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春秋左氏傳에는 義는 利之本이라 하고, 易經의 文言傳에는 利者는 義之和라 하고 하였으며, 大學에서는 國은 利로서는 利하지 않고 義로서만 利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孔夫子는 義를 利의 上이라 하여 君子가 이 世上에서는 가는 것도 아니고 가지 않는 것도 아니라, 오직 義의 所在에만 與比한다고 하였으니, 君子는 喻於義하여 〔里仁〕 義以爲質〔衛靈公〕 하고 見得思義〔張子〕하는 것이다. 易經의 坤卦文言傳에는 義以方外라 하고, 書經의 仲虺之誥에는 以義制事라 하였으니, 內的인 仁의 精神으로써 外的으로 事爲를 方正하게 하는

73) ibid. 卷二九, 答金而精.

74) 柳正基, 東洋思想事典(대구: 大韓公報社, 1975) p. 43.

것이 義라는 것이다. 즉 仁은 心인데 義는 事이며, 仁은 圓인데 義는 方이다. 왜냐하면 仁은 點이니 이를 擴大하면 圓이 되고 義는 線이니 이를 作面하면 方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仁으로만 하면 圓滿하게 되지마는 義로만 하면 方角이 나는 것이다, 이로 보면 仁과 義는 相對 概念이니, 이 두 가지는 一體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上仁만으로는 不義를 除할 수 없고, 主義만으로도 衝突을 면할 수 없으니 仁點으로 義線을 지어서 禮規가 되어야만 和樂하게 되는 것이다.⁷⁵⁾

이러한 意味의 義를 擬人化한 것이 바로 天君傳의 百揆 義이다. 이와 같은 義는 天君傳에서 뿐만 아니라 義勝記에서 孟浩然이 仁義의 方脈을 들고 적을 치러 나가는 것도 또한 前述한 바 이러한 仁義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다 하겠다.

그래서, 天君傳에서는 太宰 敬과 百揆 義가 각각 内外를 맡아 天君의 臣下로서 활약을 하는데, 이때 太宰 敬과 百揆 義는 心性論의 敬과 義思想을 擬人한 것이다. 그러므로 愼은 腔子[뱃속]에 거처하도록 하면서 天君의 宮府에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게 하였고, 百揆 義는 太宰 敬과 協同하여 직무에 順應하도록 하였으나, 天君은 微行을 좋아함에 太宰 敬이 忠諫했으나 듣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 天君이 卽위하게 됨에 이들 두 사람은 다시 天君을 모시게 되는 忠臣型 人物들이다.

良은 착함, 어짐의 뜻⁷⁶⁾으로 이를 擬人하여 天君의 公子로 등장시켰는데, 天君이 도적의 침략을 받아 나라를 잃었을 때, 公子 良만은 끝까지 天君을 따르며 운명을 같이하다가 祈招의 詩를 지어 天君을 깨우쳐 준 功臣으로 後代 天君小說에서도 같은 役의 人物로 등장된다.

大將軍 克己는 自己의 私慾을 理智로써 克服하는 것, 즉 충격, 욕망, 감정 같은 것의 과도한 發動을 억제하거나 自制하는 마음⁷⁷⁾의 擬人으로 天君傳에서는 天君의 부하로 盜賊을 치는데 先鋒이 되어 血戰하기 百습에 賊을 무찌른 武將인데, 이 역시 後代 天君小說에서도 이와 비슷한 役을 하는 武人으로 등장된다.

公子 志는 目的의 所向, 心之所之, 德性의 作用, 實行의 能力으로 마음이 어떠한 目的을 向해서 가는 것이니, 志는 人間이 萬事を 行하는 能力이다. 그러므로 朱石의 論志에 志라는 것은 心의 主요, 氣의 師요, 萬事의 樞機라. 志가 아니면 心이 立할 수도 없고, 氣가 行할 수도 없으며, 事를 成할 수도 없으니 이 志란 것이 心에 主가 되어 萬事を 造成하는 것이다⁷⁸⁾라고 하였다. 무릇 人間은 누구나 다 志를 가지고 있는데, 天君傳에서는 이러한 志를 擬人하여 天君이 도적에게 침략을 받았을 때 앞장서서 적을 물리치는 忠臣型의 武人으로 公子 志를 登場시키고 있다. 前述한 克己와 志는 後代 天君小說에서 여러 번 등장되고 있어 天君傳 以後의 天君小說을 이해하는 데 중

75) ibid. p. 44.

76) 股肱良哉(書經).

77) 克己復禮爲仁(論語).

78) 朱石 論志.

요한 인물들이다.

天君傳의 奸臣型 人物로는 公子 懈와 公孫 傲가 있는데, 이들은 字義대로 게으름과 傲慢을 擬人한 것으로 天君을 유인하여 困境에 처하게 하고 敬을 天君의 나라에서 쫓아낸다. 이 밖에도 妖賊 華督과 賊의 괴수 柳跖 등이 등장하는데, 前者는 中國 春秋時代 宋의 역신으로서 女子를 탐해 동료를 죽이고 임금까지 죽인 자로 역사상 惡名 높은 인물인데, 華字의 字義가 눈에 잘 비친다는 의미가 되니, 여기서는 銀海[눈]의 앞에 있는 妖賊에 비유한 것이다. 後者 柳跖는 中國 春秋時代 盜賊인 盜跖을 뜻함인데, 柳下惠의 동생인 까닭에 柳跖이라 命名[本姓은 展氏]한 것이다.

4. 葛藤構造

天君傳의 構造는 前述한 바의 天君의 나라에서 忠臣型 人物과 奸臣型 人物들의 對立, 葛藤에서 忠臣型 人物들의 勝利로 終結되는데, 古小說에 나오는 善惡의 對決에서 善의 勝利라는 千篇一律의 構造를 여기서도 보여 준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天君小說에서의 天君은 곧 心인데 心統性情의 論理를 小說로 虛構化한 것이므로 天君 아래에 登場된 忠臣型 人物은 性에, 奸臣型 人物은 情에 比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性은 純善無惡한 本然의 性이 되도록 하는 人物이고, 情은 善惡不定의 惡의 情에 譬喩되는 人物로 나타나고 있다.

理氣二元論者の 心性論이나 或은 氣一元論者の 心性論을 볼 때 그들 各各의 主張하는 學說은 現代哲學에서 心理의 作用을 知·意·情의 세 가지로 보는 데에 比하던 多少의 不備한 點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두 學說의 共通되는 根幹의 源流는 心·性·情의 作用이 서로 函數的 關係를 가지고 있다는 데에 그 生命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가운데는 調和가 있을지언정 西洋哲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生成鬭爭說이라든가, 或은 心理分裂說, 意志鬭爭說이라든가 또는 知·意·情의 矛盾 衝突과 같은 作用은 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西洋 哲學에 있어서는 知·意·情의 作用이 各各 그 사이에 뛰어 넘을 수 없는 어떠한 線이 가로 놓여 있어 爭의 關係에 있지만 儒教哲學에 있어서는 心·性·情의 作用이 調和의 關係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⁷⁹⁾

그리고 心에는 內面과 外面이 있는데 內面은 性이 되고 外面은 情이 된다.⁸⁰⁾ 心은 中間에서 內面인 性과 外面인 情을 媒介한다는 것이며, 또 未動은 性이 되고 已動은 情이 되는데 心은 性과 情을 貫徹한다고 한다.⁸¹⁾

性에는 어떻게 만드는 原理가 일정하게 주어져 있는데 이 原理에 따라 主宰 運用하

79) 鄭鍾復, 儒教哲學思想概說(대구;螢雪出版社, 1978) p. 111.

80) 潛室陳氏曰 心居性情之間 向裏即是性 向外即是情 心居二者之間而統之 所以聖賢工夫只在心裏著到 一舉而兼得之 橫渠此語大有功(性理大全, 卷三十三 p. 21).

81) 未動爲性 已動爲情 心即問乎動靜而無不在焉(性理大全 卷三十三 p. 4).

는 것이 心이며, 情이 어떠한지 나아가는 길로 주어져 있을 때 이 길을 따라 主宰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도 心이다.⁸²⁾ 心이 動靜 時를 主宰한다고 하는 것은 性情 兩 領域을 主宰한다는 것이 된다.⁸³⁾ 이와 같이 말하면 心・性・情이 各各 別個의 것으로 생각될 수 있겠으나 實은 같은 것이다.⁸⁴⁾ 곧 그 바탕에서 보면 心・性・情이 같은 것이나 運用되는 면에서 보면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⁸⁵⁾ 具體的으로 性과 心을 연결하는 媒介者는 知이다. 그래서 知를 性之理라고도 하고 心之靈이라고도 한다.⁸⁶⁾ 즉 同一한 知를 性의 측면에서 보면 理라 할 수 있고, 心의 측면에서 보면 靈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또 心의 一部分인 思도 知를 資料로 해서 實現된다고 말하고 있다.⁸⁷⁾

心統性情의 意味에서 본 바와 같이 情은 心의 一部分이 된다. 心의 여러 部分 중에서 더욱 重要的 意⁸⁸⁾는 情을 바탕으로 發顯한다⁸⁹⁾고 한다. 心의 本體는 本來 善한 것이나 心의 바탕인 情이 外物에 感할 때 過・不及의 弊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心도 善・不善이 생긴다는 것이다.⁹⁰⁾

이와 같은 心統性情의 論理를 虛構化하여 心・性・情의 作用이 調和의 關係에서 生成鬭爭, 意志鬭爭의 樣相으로 譬喩되어 小說의인 展開를 爲한 變貌를 보인 것이 곧 天君小說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天君傳을 비롯한 後代 天君小說 모두가 이러한 心理現象을 교묘히 襲用하면서 小說로서의 展開를 보인 것이므로 心統性情의 論理에서의 變貌와 援用의 兩面性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前述한 天君傳의 梗概에 依하여 天君 아래에 登場되는 忠臣型과 奸臣型 人物의 對立 葛藤의 樣相을 梗概에서 간주된 段落의 數나 各 段落의 敘述量과 表現 內容 등으로 圖式化할 수도 있겠으나, 本 研究에서는 各 段落의 分量이나 內容을 參照하면서 大君 아래에 등장하는 兩型 人物의 對立, 葛藤에 해당되는 段落 數를 作品 全 段落의 比率

82) 心主宰之謂也 動靜皆主宰 非是靜時無所用 及至動時方有主宰也(性理大全 卷三十三 p.13).

83) 據性上說 寂然不動處是心亦得 據情上說 感而遂通處是心亦得 故孟子說 盡其心者 知其性也(語類 卷五 p.19).

84) 故以其未發 而全體者言之則性也 以其已發而妙用者 言之則情也 然心統性情只就渾淪一物之中 指其已發而爲言耳 非性是一箇地頭 心是一箇地頭 情又是一箇地頭 如此縣隔也(性理大全 卷三十三 p.14).

85) 性只是理 情是流出運用處 心之知覺即所以具此理而行此情者也(性理大全 卷三十三 p.15ff).

86) 問知覺是心之靈 固如此 抑氣之爲邪 曰不專氣 先有知覺之理(語類 卷五 p.7).

問心是知覺 性是理 理與心如何得貫一 曰不須去貫通 本來貫通(語類 卷五 p.8).

87) 問知與思 於人身最緊要 曰然 二者也只是事 知如手相似 思是教這手去做事也 思所以用生知也(性理大全 卷三十三 p.46).

88) 心者 一身之主宰 意者心之所發 情者心之所動 志者心之所之 此於情 意尤重(語類 卷五 p.34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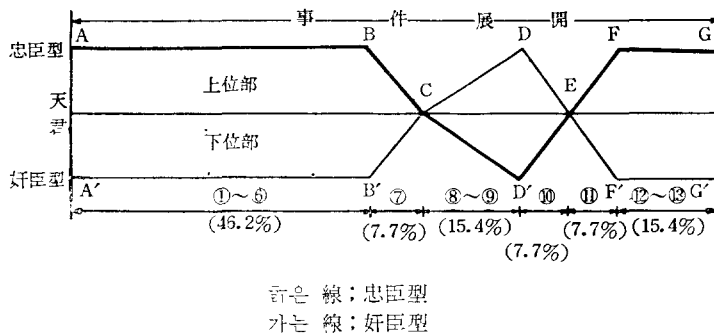
89) 問意是心之所發 又說有心而後有忘 則是發處依舊是心主之 到私意盛時 心也隨去曰固然(性理大全 卷三十三 p.38).

90) 却是心之本體 本無不善 其流爲不善者 情之遷於物而然也(性理大全 卷五 p.7).

孔泳立, 朱子學에 있어서 心統性情問題, 東洋文化研究 第五輯(慶北大學校 東洋文化研究所, 1978) p.320ff.

에 依하여 事件의 克服 過程을 圖式化하였다.

段落의 叙述 樣式이나 量 혹은 表現內容은 事件 展開에 있어 天君小說 作品 間에 큰 變化가 없는데 比해서 作品을 通해 作者의 意識이나 時代相의 反影을 照明하는 데는 段落 數의 多寡 程度와 段落의 克服 過程이 더욱 重要하기 때문에 對立에서 下降과 上昇, 다시 上昇과 下降, 對立의 展開 過程에 해당되는 段落의 數에 따라 作品 全體와 各 段落의 構造를 一目瞭然하게 圖式化하였으니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圖式에서 A~B와 A'~B' 위치는 奸臣型 人物이 忠臣型 人物에 制禦되어 天君의 나라에는 太平歲月이 영위되고 있음을 뜻하여, 이러한 狀況은 兩型 人物의 對立, 葛藤을 거쳐 事件의 終末 部分인 F~G, F'~G'와 同一한 樣相을 보이고 있다.

B~C와 B'~C는 奸臣型이 忠臣型 人物의 制禦를 벗어나 天君의 나라에는 和平이 깨어져 混亂의 境地에 접어들음을 뜻한다. 그래서 忠臣型 人物의 위세가 下降하고 奸臣型 人物은 得勢하게 된다.

그리고 C~D와 C'~D'는 이러한 두 類型 人物의 葛藤에서 忠臣型 人物이 奸臣型 人物에 정복당해 가는 狀況으로 天君의 나라가 가장 큰 혼란을 맞게 된 것을 表示함이다.

D~E와 D'~E는 天君이 忠臣型 人物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뉘우치고 잘못을 깨닫게 되어 再起를 노리게 됨을 뜻함인데, D와 D'는 天君이 理性을 완전히 잃어버린 狀態를 가리킨다.

E~F와 E'~F'는 忠臣型과 奸臣型 人物의 葛藤에서 忠臣型 人物이 得勢하여 奸臣型 人物을 退治하는 樣相을 뜻함이다.

그래서 F~G와 F'~G'의 狀況은 처음과 같이 和平한 天君의 나라로 恢復됨을 뜻함이니, 天君이 理性을 恢復, 정상적인 人間으로 돌아왔음을 가리킨다. 이러한 構造의 圖式은 天君小說 全般에 걸쳐 대체로 類似하나 다만 時代的 變遷에 따라 多少의 變化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時代的 推移에 따른 變貌 樣相으로 作品에 반영된 作者의 意識은 물론 시대적 狀況이나 思想的인 潮流가 탐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의 圖式에서 보면 天君傳의 경우 導入部 A~B 와 A'~B' 가 전체의 13個 段落中 6個 段落으로 46.2%를 차지하고 있으니, 天君小說 導入部の 平均値가 20.04%인데⁹¹⁾ 비하면 너무 장황하여 讀者에게 지루한 느낌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梗概 ①~③⁹²⁾ 段落은 天君의 出生이 天上界에서 下降하여 地上을 다스리는 君主로서의 超人像을 보이기 爲한 段落으로 이는 우리 古小說의 導入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共通的인 現象이다. 이러한 構造의 脫皮는 朝鮮後期 小說에 와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④~⑥에서는 天君이 地上界를 잘 다스려 和平한 歲月을 보였다는 것으로 君子의 心像이나 君王에 있어서도 和平한 歲月을 보내면 자연적으로 放心 放蕩해 지기 쉬운 一面을 여기서 指摘하고 있다. 事件의 展開는 이후부터 本格的으로 접어들지만 忠臣型과 奸臣型 人物의 葛藤段落으로 좀더 많은 部分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앞의 圖式에서 쉽게 볼 수 있다.

B~F 와 B'~F' 는 忠臣型과 奸臣型의 葛藤 過程을 보인 것인데, 作品 全體가 13個 段落인데 비해 이에 해당되는 葛藤段落이 5個 段落뿐으로 全體의 30.8%밖에 되지 않아 天君이 타락되는 過程이나 타락된 後에 恢復되는 과정도 너무 짧아 이로 인하여 讀者들에게 주는 긴박감과 小說로서의 興味도 그만큼 감소되었다. 導入部에서 天君의 超人像, 人君으로서의 超越者 描寫에 作者의 意圖가 너무 치우쳐진 것으로 이는 위대한 天上人인 天君이 外侵으로 함락되었지만 잠깐만에 敬과 義, 大將軍 克己에 의해 恢復될 수 있다는 作家 意識의 反影으로 인하여 葛藤 部分 B~F 와 B'~F' 가 이처럼 압축되고 만 것으로 풀이된다.

B~C 와 B'~C 는 天君의 마음이 公子 懈와 公孫 傲에 의해 게을러 지고 오만 불손 해짐을 뜻하는 段落으로, 이에서 天君의 나라에 外侵을 예상하게 한다. 그래서 忠臣型 人物을 멀리하고 奸臣型 人物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의 圖式에서도 前者가 下位部로 내려가고 後者가 上位部로上昇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C~D 와 C~D' 는 天君이 계속 忠臣型의 말은 듣지 않고 奸臣型 人物에 유혹되어 外侵을 받아 困境에 처하게 됨을 보인 것으로, 마음이 外賊에게 유린됨에 太宰 敬과 百揆 義가 숨어 버리고 天君이 危機를 맞게 되는 것으로 B~D' 와 B'~D 의 部分이 全 段落의 23.1%로 13個 段落 中 3個 段落뿐이어서 天君의 타락 과정이 너무 쉽게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마음이란 항상 위태한 것이어서 쉽게 타락될 수 있다는 作者의 意識을 反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D~E 와 D'~E 는 天君이 困境에서 허덕일 때 公子 良이 天君을 뉘우치게 하여 정신을 차리게 하는 部分으로 奸臣型 人物이 쇠퇴하고 忠臣型 人物이 다시 得勢하는 것

91) 金光淳, 前掲書 p.185 參照.

92) 以下부터 本文 中の ①②③...은 作品 梗概의 段落 번호를 表示함.

으로 13個 段落 中 1個 段落으로 너무 急進的인 恢復勢를 보여 주고 있다.

E~F'와 E~F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天君이 군사를 정비함에 太宰 敬이 다시 등장하여 大將軍 克己를 시켜 賊을 무너뜨리는 段落이다. 여기서도 全體 13個 段落 中 1個 段落뿐으로 타락된 天君[마음]은 큰 진통을 겪지 않고 쉽게 恢復하게 된다. 이처럼 짧은 것은 한 번 타락된 마음이 다시 恢復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作者의 意識을 반영한 것이다.

F~G와 F'~G'는 天君의 나라가 처음과 같이 和平해진 상태를 나타낸 것인데, 이는 마음이 安定을 되찾았음을 보인 것으로, 天君이 다시 天上界에 올라감으로써 終結되는 部分이다.

이처럼 天君傳의 構造는 앞의 圖式에서 보인 바와 같이 導入部가 너무 길고 葛藤部分이 짧은 결함 때문에 小說이 주는 흥미가 감소되어 構造的인 側面에서는 成功을 거두지 못했지만, 初期 小說이란 點을 감안한다면 重要的 意義가 있다. 그리고 作品 末尾에 作者의 主觀을 添附한 論評部는 作者가 讀者에게 意圖한 바의 思想을 좀 더 強調하고자 添加하고 있지만 小說에서 讀者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상력의 限界를 지워버린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終結部의 論評은 當時 流行하던 史記 列傳體의 史評을 그대로 踏襲한 形式으로서 小說의 興味를 저하시킨 結果만을 超來했을 뿐이다.

忠臣型과 奸臣型 人物들의 對立, 葛藤으로 展開되는 事件의 構造는 勸善懲惡을 主題로 한 一般的인 古小說의 構造와 一致되며, 全體的인 構造의 統一性 내지 劃一性은 逸士小說의 構造와 類似하다.

構造 分析의 結果 天君이 忠臣型 人物인 太宰 敬과 百揆 義를 가까이 하면 나라가 和平해 졌고, 이들을 멀리하면 문란해 졌다는 點으로 보아, 마음을 平安하게 하려면 敬義思想을 重視해야 한다는 君子로서의 心法을 主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思想을 立證해 주는 論評部를 보면,

내가 보건대 天君의 임금됨은 太宰 敬의 도움에 달려 있는 것이라. 天君의 나라가 잘 다스려질 때는 敬을 宰相으로 하였기 때문이고, 어지러워진 것은 敬을 버렸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敬을 다시 찾았기 때문이었으며, 그 上帝와 견줄 수 있었음도 敬으로써 因하였고, 萬邦을 통치함도 敬으로써 하였으니, 첫째도 太宰였고, 둘째도 太宰였다.

嗚呼라! 한 宰相을 얻으면 興하고 한 宰相을 잃으면 亡하였으니, 人君이 可히 더불어 할 바를 조심하지 않을 수 있은가? ⁹³⁾

라고 한 것으로 보아, 天君傳은 作者가 意圖의으로 敬義思想, 그 가운데서도 특히 敬思想을 重視해야 된다는 作者의 主觀을 강력하게 반영하여 構想한 小說임을 알 수

93) 太史公曰 豫觀天君之爲君也 其賴太宰敬之輔乎 其治也 以相敬 其亂也 以去敬 其還也 以復敬 其配上帝也 以敬 其統萬邦也 以敬 一則太宰 二則太宰 嗚呼 得一相而興 失一相而亡 人君可不慎所相與東岡集 卷之十二, 天君傳 末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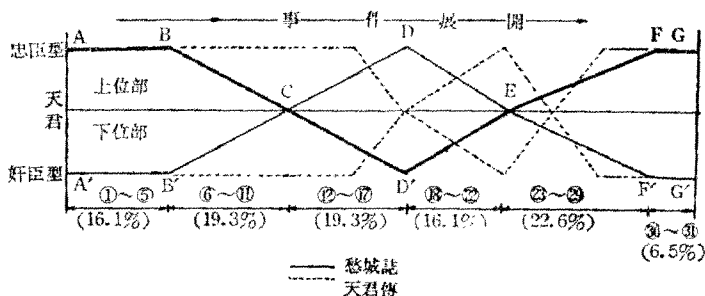
있다. 또한 그 創作 意圖는 단순히 이러한 心法에서 뿐만 아니라 人君이 忠臣의 들으면 나라가 平安하지만 奸臣의 말을 들으면 困境에 처하게 된다는 敎訓性도 中 中 비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治心이 곧 治國이요, 治國의 方法이 곧 治心의 方과 同一함을 示唆하고 있다.

5. 文學的 價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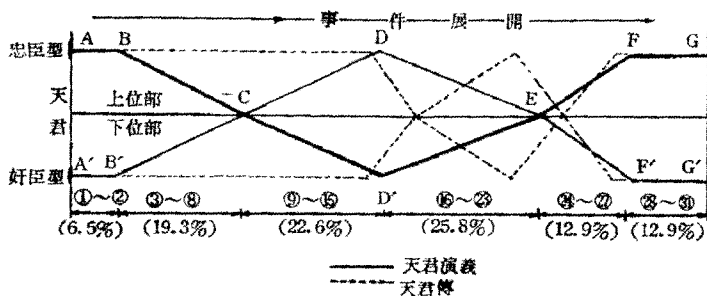
天君傳은 현재까지 발굴된 天君小說 中 最初の 것으로서 그것이 차지하는 文學的 價値는 至大하다고 할 수 있다.

天君實錄의 作者인 小隱 柳致球는 天君實錄의 跋文에서 옛날 東岡 金先生이 天君傳을 지었고, 族先祖 上舍 石巖公이 軀書를 편찬했다. 그런데 天君傳은 너무 잔략하고 軀書는 번잡함이 지나쳤다. 이에 두 作品을 절충해서 모아 一通의 天君實錄을 이루었다⁸⁴⁾고 하였으니 天君傳이 後代의 天君小說에 미친 영향을 가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天君傳의 영향은 비단 天君實錄에만 限定된 것이 아니며, 또 단순히 參考만 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天君傳에서 보여 주는 葛藤構造가 其他의 後代 天君小說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天君傳은 後代 天君小說들의 模型으로서, 登場人物・葛藤構造・主題 등 全畵에 걸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① 愁城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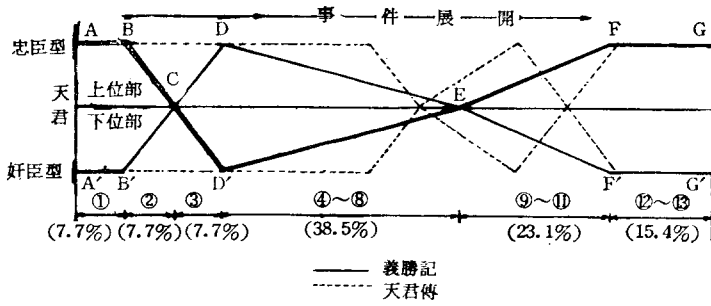


② 天君演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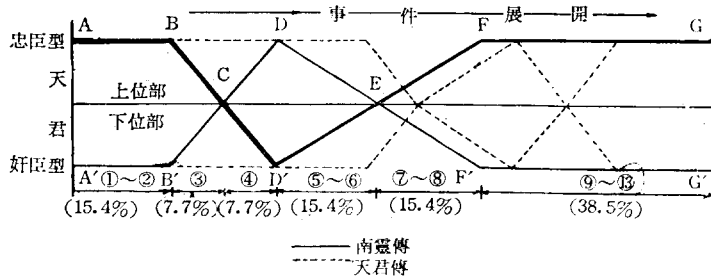


西集 卷之五 二十八, 天君實錄 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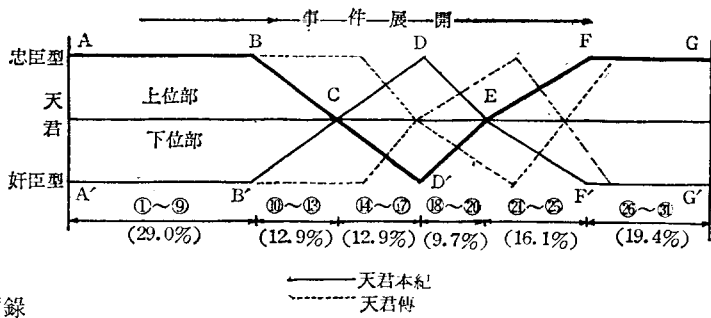
③ 義勝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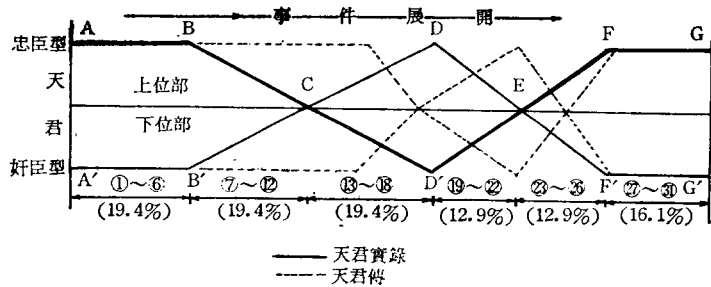
④ 南靈傳



⑤ 天君本紀



⑥ 天君實錄



이러한 天君傳의 영향을 보다 具體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天君傳의 葛藤構造를 後代의 天君小說인 愁城誌, 天君演義, 義勝記, 南靈傳, 天君本記, 天君實錄 등의 葛藤構造와 對比시켜 보면 前面 ①②③④⑤⑥의 圖表⁹⁵⁾와 같다.

前面的 圖表에서 볼 때 天君傳의 構造는 後代 天君小說에 의하여 그대로 繼承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天君小說에 등장하는 人物들 역시 天君傳의 등장인물 類型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모든 登場人物이 天君을 中心으로 하여 善人型과 惡人型으로 兩分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登場人物의 名稱만 作品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⁹⁶⁾

한편 最近에 發見된 凝窩 李源祚의 作品으로 天君小說의 일종인 心史는 天君傳이 後代 天君小說에 끼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凝窩 李源祚는 正祖 16年(1792 A.D.)에 慶北 星州에서 出生하여 高宗 8年(1871 A.D.)에 卒한 朝鮮 末의 文臣이다. 18歲에 文科에 及第한 후, 內職으로 司諫院 正言·司憲府 持平 등을 지내고, 外職으로 江陵府使·濟州牧使·慶州府尹 등을 지낸 다음, 大司諫을 거쳐 工曹判書에서 致仕하였다. 그는 文臣의 班列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退溪→鶴峯→敬堂→大山→立齋의 脈을 이어 그의 조카 寒洲 李震相에게 學脈을 傳한 性理學者이기도 했으니,⁹⁷⁾ 그의 著書로는 心史 以外에도 性理學 關係書로서 性經, 復性圖說 등이 傳하고 있다.

그의 從曾孫이 엮은 筆寫本 年譜를 통하여 살펴 보면, 心史는 作者가 24歲 때에 지었음을 알 수 있는데, 凝窩는 心史의 序文⁹⁸⁾에서 本 作品이 東岡의 天君傳을 읽고 敷衍한 것임을 직접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分量面에 있어서나 內容面에 있어서 本 作品은 天君傳과 가장 類似하다.

作品의 構造는 天君小說의 嚆矢인 天君傳과 符合되며, 用語와 文體는 勿論 擬人化의 對象에 있어서도 天君傳과 恰似하다. 心史는 上·下卷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上卷에서는 上帝의 長子인 理와 次子인 氣가 함께 下土에 被封되어 治世하는 過程에서의 性·情의 相互作用을 叙述하였으며, 下卷에서는 下土의 心を 天君에 封하여 上卷과 同一한 類型의 事件을 展開시키고 있다. 따라서 上卷에서는 東岡의 天君傳의 構成에 作者의 創意性을 添附하였으나, 下卷에서는 小說美學的인 發展을 試圖한 것이라 評價된다. 이는 不變的인 性理學 一邊倒의 朝鮮朝 精神史의 흐름과 可變的인 時代意識 사이에 處한 著者의 立場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凝窩의 心史는 東岡의 天君傳에 至대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作者가 南冥의 神明舍圖를 解說한 神明舍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東岡과는 同鄕人이었던 點 등을 고려할 때, 心史

95) 各 圖表에서 굵은 線은 忠臣型, 가는 線은 奸臣型 人物의 位置를 나타냄.

96) 天君傳과 後代 天君小說의 상세한 比較는 金光淳, 前掲書 pp. 119—181 參照.

97) 震樓學會編, 韓國史 參照.

98) 凝窩漫稿(筆寫本), 心史 序.

는 天君傳과 同一한 創作 動機下에서 쓰여졌음을 推定할 수 있다.

以上에서 볼 때, 天君傳은 天君小說의 嚆矢로서 後代의 天君小說 創作에 決定的인 影響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後代의 天君小說들은 그 構造, 登場人物, 主題에 있어 天君傳의 그것을 그대로 繼承하고 있기에, 天君傳의 文學的 價値는 곧 全體 天君小說의 文學的 價値로 확대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이제 天君傳이 갖는 文學的 價値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 그것을 토대로하여 天君傳이 갖는 小說史的 意義도 함께 考察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해야만 天君傳에 대한 正當한 評價가 이루어짐은 물론 東岡의 文學 世界도 좀 더 깊이 이해될 것이기 때문이다.

天君傳의 文學的 價値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心性을 擬人하여 小說의 形式으로 轉換하였다는 點, 즉 心經正學의 內容에 일정한 時間과 空間을 부여하여 小宇宙의 世界를 設定하고, 抽象的인 心性의 要素를 感覺的인 人物로 形象化함으로써 既存 理論에 作者의 體驗을 通한 意識과 創意力이 投影되어 小說 作品으로서 具體化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心性의 小說化로 整齊된 小說로서의 構造美를 갖춘 것이니, 이는 앞서의 作品 構造 分析에서 證明된 바 있다.

그래서 小說文學의 表現 道具를 빌어 治國의 方法으로 治心의 方法을 提示한 作者의 意圖는 心經正學이기 이전에 初期 小說로서 時代相을 감안한다면, 天君小說의 文學的 價値는 더욱 높이 評價된다.

둘째, 天君傳은 忠臣型 人物과 奸臣型 人物의 對立, 葛藤에서 忠臣型 人物은 奸臣型 人物의 공격으로 궁지에 처했다가 힘겹게 이를 克服하는데, 여기서 兩類型 人物의 葛藤은 곧 性과 情의 葛藤에 譬喩되기 때문에 人間이 情을 억압하고 性을 회복하는 데는 그만한 역경과 진통이 따른다는 견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적인 체험이든 상상적인 체험이든 간에, 일종의 체험을 作者가 作品에다가 小說 美學的으로 승화시켰다는 데 중요한 意義가 있다.

小說 內容에서 중요한 것은 忠臣型 人物이 奸臣型 人物을 마침내 제압할 수 있다는 決定論的 思考나 樂觀論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은 性과 情의 葛藤을 克服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性이 情을 억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要求된다는 사실을 心經의 論理에 譬喩하여 小說 美學的인 構造로 展開시켰다는 데 중요한 價値가 있다.

셋째, 天君傳은 일종의 觀念小說이다. 創作의 意圖가 어디에 있었든 또는 作者의 豫備 知識을 어디에서 얻어 왔든지 간에 作者는 人間 心理를 깊이 省察하고 解剖하여 다음의 行路를 구체적으로 形象化하였다. 忠臣型 人物이 奸臣型 人物과의 치열한 葛藤을 거쳐 결국 奸臣型 人物을 制御함으로써 天君의 나라에 平和가 온다는 것은, 人間은 本能的 欲求과 理性 사이의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으며, 後者가 前者를 制御했

을 때 비로소 마음에 平和가 온다는 心理學的인 省察을 보여 준 데에서 初期 小說로서의 文學的 價値는 더욱 높이 평가된다.

이상에서 天君傳이 갖는 文學적 가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특히 天君傳은 이와 같은 價値를 지니는 일련의 天君小說의 嚆矢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큰 가치를 지닌다.

그럼, 이같은 文學的 價値를 지니고 있는 天君傳이 우리 小說史上에서 갖는 意義는 무엇인가?

첫째, 天君傳은 天君小說의 嚆矢로서 小說史的 斷絶을 막아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小說은 金鰲新話에서 洪吉同傳⁹⁹⁾으로 그리고 壬亂後의 英雄小說, 九雲夢, 謝氏南征記 그리고 英·正祖代를 前後하여 나온 作者, 年代 未詳의 小說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從來의 小說史를 論하는 사람들은 金鰲新話부터 洪吉同傳까지의 100여년 간을 小說이 創作되지 않은 空白期로 보고, 洪吉同傳 以後부터 본격적으로 小說史를 論議하고 있으나, 이것은 天君小說에 대한 理解가 不足한 데서 나온 誤謬였다. 왜냐하면 金時習이 金鰲新話を 創作한 것이 15C 末葉이고 許筠이 洪吉同傳을 創作한 것이 17C 初葉인데 이들 두 作品 사이에 天君傳이 창작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天君小說의 하나인 愁城誌도 이 때 지어졌다. 따라서 天君傳은 既往의 小說史上에서 空白期로 다루어졌던 기간을 채워 줌으로써 小說史的 斷絶을 극복해 주었다는 점에서 小說 文學史에 重要な 意義를 갖는다고 하겠다.

둘째, 當時 小說을 排擊하던 儒學者들에게 小說의 効用 價値를 일깨워 주었으며 小說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朝鮮朝의 儒學者들은 小說을 淫談稗說이라 하여 철저히 排擊하였다. 그들은 小說 文體도 問題視하였으나 그 內容이 淫談稗說과 男女期會란 점에서 더욱 배격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天君傳은 이를 克服하기 위해 小說의 形式은 빌되, 그 內容에 있어서는 淫談稗說이나 男女期會之詞를 가능한 한 除外시키고 題材나 素材 기타 등장 인물을 모두 心性論에서 借用하여 儒學思想을 小說化함으로써 儒學者들의 排擊을 면할 수 있었다. 나아가, 天君傳을 읽음으로써 心經正學을 익히고 배우는 한편 小說의 흥미도 느낄 수 있어 儒學者들의 小說에 대한 認識을 점진적으로 變貌시킨 媒介의인 役割을 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이러한 事實들에 힘입어 天君傳은 儒學者들에게 그만큼 가까이 접근될 수 있었고, 동시에 儒學者들과 天君小說 以外の 作家群과의 거리를 보다 좁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셋째, 小說을 平民이나 庶民의 專有物인양 생각하고, 儒學者와 小說의 關係를 지나

99) 筠又作洪吉同傳 以擬水滸(澤堂集 別集 卷十五, 雜著, 散錄 二十二).

澤堂云……筠又作洪吉童傳(松泉筆譚).

燕山君實錄 六年條와 中宗實錄 八年, 十八年, 二十五年 條에 洪吉同의 記錄이 있는 點 등으로 보아, 許筠이 쓴 洪吉同傳은 「童」字가 아닌 「同」字이며, 이러한 誤謬의 嚆矢는 松泉筆譚이다.

치게 排他的인 관제로 파악해 온 종래의 견해에 조심스런 反省을 제기한다는 點이다. 지금껏 小説은 平民 庶民 혹은 閨中の 婦女子들만이 가까이 했고, 兩班 士大夫들은 소설에 전혀 否定的이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데 天君傳은 分明히 小説인데도 儒學者들에게 배척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儒學者 自身에 의하여 創作되었다는 點에서 既存의 說에 의문을 提起하게 만든다. 儒學者들이 小説의 형식을 통해 心經正學의 論理를 虛構化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小説의 原理를 이미 터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朝鮮朝 小説들이 匿名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天君傳의 作者가 分明하게 밝혀졌다는 것도 그들의 小説에 대한 肯定的인 평가의 一面을 보여 준다. 이러한 사실들은 儒學者들도 사실상 소설을 읽고 있었으며 나아가 그들이 직접 小説 創作에 개입하였을 가능성도 시사한다. 따라서 이는 앞으로 좀 더 연구 검토되어야 할 과제가 되리라 여겨진다.

이상에서 우리는 天君傳이 갖는 文學的 價値와 小説史的 意義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天君傳의 文學的 價値와 小説史的 意義는 곧 전체 天君小説의 그것으로도 확대될 수 있을 만큼 의미심장한 것이다. 이는 天君傳이 最初의 天君小説이라는 데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Ⅴ. 漢 詩 文 學

東岡 金字顯의 詩 作品으로 現傳하는 것은 東岡集에 실려 있는 44題 53首다. 卷一에 9張에 걸쳐 수록된 25題 29首와 補遺篇인 卷十八의 6張에 걸쳐 수록된 19題 24首의 이 詩들은 東岡의 遺文이 7冊 19卷에 걸쳐 刊行된 것에 비하면 아주 微微한 分量이다.

東岡集은 疏, 劄, 啓辭, 經筵講義 등이 量的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當時의 個人 文集들이 일반적으로 詩를 중심으로 편찬되었고 또 詩가 當時 士人들의 가장 普遍化된 交情 수단이었음을 생각할 때, 이는 매우 異例的인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단 東岡의 道學儒的인 性格을 反映하는 것으로 看做할 수 있으며, 文以載道類의 傳統 儒家의 價値觀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鮮初에 이미 鄭如昌을 비롯한 一群의 儒者들 사이에서 平淡蕭散한 朱子의 詩精神에 根據하여 所謂 理學派詩가 萌芽하였고, 退溪조차도 三千餘首의 詩가 現傳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東岡의 詩가 寡作이라는 사실은 東岡 一個人의 特徵일 뿐 결코 모든 道學儒들의 一般的인 現象은 아니다.

결국 東岡의 寡作은 그 文學觀의 간접적인 表出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東岡의 詩는 形式上에 있어서 近體詩가 대부분이고 古體詩는 五言古詩 3首와 六言詩 1首 뿐이다. 近體詩 중에서도 正型인 律詩와 短型인 絕句만이 있으며 長型인 排律

은 없다. 量的으로는 七言絶句가 전체 54首의 거의 半인 25首를 차지하여 最多數를 占하고 있다. 여기서도 破格을 꺼리는 東岡의 趣向이 드러나고 있는데, 東岡의 詩를 形式上으로 分類하여 圖式化 하면 다음과 같다.

卷 形式 字數	五 言		六 言		七 言		計
	卷 一	卷十八	卷 一	卷十八	卷 一	卷十八	
絶 句	5				11	14	30
律 詩	5	5			5	4	19
古 詩	2	1	1				4
計	18		1		34		53

東岡의 詩는 量的으로는 不足하나 그 品格面에서는 매우 優秀하다. 그의 詩는 典雅함을 바탕으로 하여 感情의 表出을 自制함으로써 感情을 言表에 드러내지 않음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詩는 餘韻이 무척 길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처럼 言語의 含縮에서 오는 餘韻이기 보다는 오히려 詩 全篇의 調和에서 感知되는 餘韻이기 때문에 讀者로 하여금 쉽게 詩 內面의 雰圍氣에 젖어 들게 한다.

그의 詩는 대략 14個의 主題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梗概를 一瞥하면 다음과 같다.

物外閑適：作者가 自然과의 主觀의인 交感을 通하여 既存의 客觀的 現實을 脫殼함으로써 이른바 物外閑人의 理想을 追求하고 窮極에서는 主觀과 客觀의 完全한 調和 곧 物我一如의 호젓한 境地를 노래한 詩들을 指稱한다. 이 主題下의 詩로는 卷一의 〈即事〉〈宿炭枝村〉〈入德山洞〉〈西溪唱酬(三首)〉等 6首를 들 수 있다. 이 중 〈即事〉를 一例로 들면 다음과 같다.

入戶琴書靜 出門湖海深
松風吹野服 幽獨好開襟(卷一, 即事)

歸田隱居：作者가 辭職하고 田里에 隱棲할 때의 喜悲를 描寫하고 있는 作品으로 卷一의 〈晚出逍遙亭(二首)〉과 卷十八의 〈次權叔正韻(四首)〉〈出城寓居仁川南村〉等の 七首가 있다. 〈晚出逍遙亭〉과 〈出城寓居仁川南村〉은 作者가 60歲되던 宣祖 32年(1599 A. D.) 正月에 漢城左尹을 끝으로 宦路에서 물러나 仁川에 逍遙亭을 짓고 隱居할 때의 作品이며, 〈次權叔正韻〉은 權用中의 詩를 次韻하여, 辭職하고 돌아가는 즐거움과 宦路의 부질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 가히 東岡 歸田歌의 白眉라 할 수 있다.

安貧樂道：淡泊한 生涯를 通하여 天命에 順從하고 道를 즐길 줄 알았던 東岡의 面貌는 卷一의 〈夢作(二首)〉과 卷十八의 〈記夢〉에서 잘 드러나 있으니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山妻筍蕨羹 溪伴銀鱗膾
飽後携青藜 蒼松碧蘚外(卷一, 夢作 其一)

風流飲酒：道學儒에게 있어서 飲酒는 어색한 行爲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그러나 自然을 나에게 혹은 나를 自然에 접근시킴으로써 人格의 淨化를 追求했던 東岡에게 있어서 술은 風流를 爲한 것인 동시에, 나아가서는 創造를 위한 媒介體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여기에서 철저한 道學儒였던 東岡에게 飲酒가 風流로 受容될 수 있는 素地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飲酒를 主題로 다루고 있는 東岡의 詩로는 卷一の〈喫江醴酌山醪〉〈贈朴富平〉〈次權叔正韻〉, 卷十八의〈和尹彥聖〉等 4首이다.

交友相思：卷一の〈待人不至〉〈看簡齋詩偶與意會〉〈述懷贈西原徐令公〉, 卷十八의〈贈黃參議〉〈在月岳山寄彥聖〉〈和河性源韻〉의 6首가 交友의 즐거움과 不遇의 그리움을 主題로 하고 있다. 詩를 통하여 본 東岡의 心은 淡淡하면서도 은근하여 表面에 드러나지 않는 사무침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待人不至〉를 例로 들어 본다.

待君君不來 天濶水空迴
林密多豺虎 危道各傾欹(卷一, 待人不至)

感激君恩：卷一の〈見敕書感泣寓懷〉는 己丑獄事에 연루되어 咸鏡道 會寧에 流配되다가 3年만인 壬辰年에 赦免을 얻어 임금의 恩惠에 感謝하는 詩이다.

爲國憂民：7年 間의 壬辰倭亂을 겪는 동안에 國政의 昏迷와 民生의 피해를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衷情에서 우러나는 憂國之心과 나라와 百姓에 대한 근심을 詩로 표현하였다. 卷一の〈有感〉〈和權叔正〉〈贈鄭愚伏〉〈憂憤〉과 卷十八의〈和權叔正〉〈贈權叔正〉等 6首가 이러한 主題의 詩인데 특히 〈憂憤〉은 十九韻의 五言古詩 長篇으로 東岡이 會寧 謫所에서 漢陽이 함락되었단 소식을 듣고 지은 詩로서 北塞孤臣의 분노와 안타까움이 절실하게 드러나 있다.

向主丹忠：卷一の〈次韓昌黎韻〉은 作者가 會寧으로 流配되어 가던 途中에 지은 詩로서 뜻밖의 流配에 대한 놀라움과 主上을 向한 孤臣의 丹心이 변함 없음을 그리고 있다.

爲人讚頌：卷一の〈贈金鶴峯〉은 同宗의 族人인 當世의 巨儒 鶴峯 金誠一이 會寧謫所로 書信을 보내준 데 대한 感謝의 念과 鶴峯의 人品을 그리고 있으며, 卷十八의〈端州路聞劉將軍克良戰死臨津援筆涕下〉의 詩는 守禦使 申誥의 麾下에서 倭賊을 방어하다가 臨津江에서 戰死한 劉克良將軍을 기리고 있다.

咏物托意：戰亂과 黨爭의 渦中에서 살다간 東岡은 非理와 不義에 對한 忿怒를 詩로 표현했다. 詩의 諷喻的 功能은 詩經에서 淵源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있어서 詩人이 素材로 사용하는 事物은 이미 客觀的인 그 事物 자체가 아니며 詩人의 눈을 통해 主觀化된 것이다. 東岡의 咏物托意類의 詩들은 文學的 側面에서 볼 때는 매우 直叙的인

고 稚拙한 諷喻의 方法이지만 功能에 바탕한 東洋의 傳統的 對詩觀으로 볼 때는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類의 詩로는 卷一의 〈諷寄鄭仁弘〉〈種菊〉〈嘲黃花〉〈答或人〉〈謝鄭寒岡送玉假山〉 등을 들 수 있다.

臨別哀傷：卷十八의 〈次藥圃鄭公韻(二首)〉와 〈謹次家兄伊溪韻送行安峽〉〈贈友人〉 등은 離別의 슬픔을 이야기한 것인데, 특히 〈次藥圃鄭公韻〉에서 그 슬픔의 정도를 잘 묘사하고 있으니 이를 보던 다음과 같다.

春淺偏思酒味長 情深何以慰愁腸
東風一別人如玉 獨倚危欄倍慘傷(卷十八, 次藥圃鄭公韻 其二)

感物抒情：卷十八의 〈惜春〉과 〈春晚病病贈金朝瑞(二首)〉〈喜雨〉의 3首는 東岡의 詩作品 가운데서 가장 抒情性이 짙은 작품으로 詩의 功能性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작품들인데, 〈惜春〉을 例로 들어보던 다음과 같다.

紅盡映山紅發桃 鶯花夕謝綠花朝
無人共把鸕鷀盞 風雨飄搖恐不饒(卷十八 惜春)

離鄉客懷：卷十八의 〈稷山遇雨留行呈縣宰崔伯進〉〈步簡齋韻呈中原主牧〉의 2首는 作者가 寓居를 떠나 旅路의 感傷을 記錄하여 守令에게 준 詩들인데, 특히 後者는 作者의 人生觀을 잘 표현하고 있다.

紀行詩：卷十八의 〈紀行〉은 長篇 紀行詩이다. 作者가 61歲 되던 宣祖 31年(1600 A.D.) 2月 17日에 그의 寓居인 仁川을 出發하여 星州의 先塋에 拜謁하고, 4月 2日 仁川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路程과 遇人을 기록한 이 詩는 押韻에 있어서도 一定한 規則을 찾을 수 없으며, 內容도 또한 그의 族行 經過를 기록한 것에 불과해서 오히려 散文에 가깝다.

以上에서 살펴본 東岡의 詩를 主題 別로 分類하여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主 題 \ 卷 數	卷 一	卷 十 八(補遺篇)	計
物外閑適	卽 事 宿炭枝村 入德山洞 四溪唱酬(三首)		4題 7首
歸田隱居	晚出逍遙亭(二首)	次權叔正韻 出城寓居仁川南村	3題 4首
安貧樂道	夢作(二首)	記 夢	2題 3首
風流飲酒	喫江膾酌山醪 贈朴富平 次權叔正韻	和尹彥聖	4題 4首

東岡의 生涯와 文學

主 題 \ 卷 次	卷 一	卷 十 八(補遺篇)	計
交友想思	待人不至 看簡齋詩偶與意會 述懷贈西原徐令公	贈黃參議 在月岳山寄彥聖 和河性源韻	6題 6首
感激君恩	見敕書感泣寓懷		1題 一首
爲國憂民	有 感 和權叔正 贈鄭愚伏 憂 憤	和權叔正 贈權叔正	6題 6首
向主丹忠	次韓昌黎韻		1題 1首
爲人讚頌	贈金鶴峯	端州路閣劉將軍克良戰 死臨津援筆涕下	2題 2首
咏物托意	諷寄鄭仁弘 採 松 花 種 菊 嘲 黃 花 答 或 人 謝鄭寒岡送玉假山		6題 6首
臨別哀傷		次樂圃鄭公韻(二首) 謹次家兄伊溪韻送行完峽 贈 友 人	3題 4首
感物抒情		惜 春 春晚病贈金朝瑞(二首) 喜 雨	3題 4首
離鄉客懷		穆山遇雨留行呈縣宰崔伯 進步簡齋韻呈中原主牧	2題 2首
紀 行 詩		紀 行	1題 1首

東岡은 이른바 등용되던 나아가고 버려지면 들어 앉는다〔用之則行 舍之則藏：論語述而〕는 傳統的 價値觀이 分明한 사람이었다. 그의 行爲는 항상 뜻을 얻었을 때의 忠과 물러났을 때의 自修의 두 갈래로 歸結되었으며, 그의 이러한 面目은 詩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곧 위 圖表에서 볼 수 있는 바의 物外閑適, 歸田隱居、安貧樂道 風流飲酒의 主題 別 分類는 自修의 過程에서 派生된 詩品들이며, 感激君恩, 爲國憂民, 向主丹忠, 詠物托意 등은 忠의 概念으로 포괄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行과 藏을 主題로 한 이들 27題 32首는 量的으로 全體 詩 44題 53首의 거의 三分之二를 차지하고 있어 東岡 詩 世界의 重要한 特徵을 이루고 있다.

Ⅶ. 結 論

지금까지 東岡 金宇顙의 生涯와 그의 思想的 志向 및 治世觀 그리고 그의 文學世界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以上에서 論議된 것들을 結論적으로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東岡의 生涯에 對해서는 東岡先生 年譜와 그의 後孫 金槐의 手稿인 年譜 別本에 依據하여 年條別로 자세하게 整理하여 東岡의 生涯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東岡의 思想 특히 그의 儒學思想的 志向과 治世觀을 東岡集이나 그가 20餘年間 經筵에서 講義한 部分에서 檢討 考證한 結果, 그의 思想은 典型的인 儒學思想的 所持者였으며 특히 그 가운데서도 敬義思想을 몸소 실천함이 곧 君子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고, 또한 이러한 思想에 기반을 둔 治者가 가장 올바른 理想的인 爲政者임을 說破하고 있음을 考察하였다.

셋째, 天君傳에 대한 考察은 다섯 項目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創作時期 및 神明舍圖와의 關係, 登場人物, 葛藤構造, 文學的 價値와 小說史的 意義 등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天君傳의 創作時期는 그의 年譜를 통해 볼 때, 東岡이 27歲되던 해(明宗 21年 1566 A.D.)였으며, 南冥의 神明舍圖가 直接的인 創作 動機가 되었음을 考察하였다.

葛藤構造는 平定→混亂→平定の 구성으로 되어 있다. 처음에는 善人型이 優位에 있어 나라가 平和로왔으나, 奸臣型의 모함으로 善人型이 몰락하고 奸臣型이 得勢함으로써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가, 天君의 覺醒으로 善人型이 다시 復歸함으로써 나라가 和平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構造는 心統性情의 原理를 小說美學的으로 形象化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天君傳은 天君小說의 嚆矢로서 後代의 天君小說 創作에 決定的인 影響을 미쳤다. 따라서 天君傳이 차지하는 文學的 價値와 小說史的 意義는 全體 天君小說들의 그것과 同一視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네째, 東岡集에 실려 있는 漢詩를 통해 東岡의 漢詩文學을 고찰하였다. 東岡集에는 總 53首의 漢詩가 실려 있어 量的으로는 많지 않으나 詩의 品格面에서는 매우 優秀하다. 形式上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近體詩로서 正形인 律詩와 短形인 絕句가 主流를 이루며 長形인 排律은 나타나지 않는다. 內容上에 있어서는 대략 14個의 主題로 分類될 수 있으며, 이중에서 자신의 行과 藏을 主題로 한 것이 32首로서 全體 詩의 三分之二를 占하고 있어 東岡 詩 世界的 중요한 特徵을 이루고 있다.